



[3분기 실적]
삼성·LG전자
어닝서프라이즈?
국내외 곳곳 암초
03



Economy

코스피	2046.25 (0.00)	코스닥	635.41 (0.00)
금리 (연평균)	1.26 (+0.03)	환율 (원/달러)	1193.10 (-3.50) (8일)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의장도 ‘親기업 메시지’

文정부, 경제정책 무게추 옮기나

文 ‘노동시간 단축 보완’ 주문
이낙연 총리, 문희상 의장도
대기업, 국내산업 위상 전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親)노동’에서 ‘친(親)기업’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최근 친기업적 발언을 언급한 게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세계재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를 골자로 한 정책)’은 친노동에 가까운 경제정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노동시간 단축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



573돌 한글날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글날 시민 꽃 바치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법령의 우선 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 발언에 대해 정·재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기업의 우려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완하게끔 주문한 것으로 ‘친기업 스킴’에 나섰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 발언은 앞서,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8월 20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해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로 대응이 어려우면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경총의 애로사항과 궤를 같이 한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식’ 때 “전자산업 덕분에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800배가 넘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전자산업의 성공에는 대기업 지도자들의 빠른 결단과 대담한 투자가 주요했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럽 헝가리 내 ‘부다페스트 삼성SDI 공장’을 찾아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이미지”라며 “삼성은 곧 대한민국이고, 둘(삼성·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위상이 상승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의 친기업 발언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명을 요구한 정계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성적표는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가 싶다”며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려면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가족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국정동력이 떨어지자 이를 회복하려는 취지가 아니냐고 진단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친기업적 메시지를 통해 국정동력의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우승준기자 dn1114@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19 제약·바이오 포럼’

다시 바이오!

-혁신의 파이프라인

K-바이오가 추락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로 기대를 모았던 모았던 토종 바이오 기업들이 연이어 글로벌 임상 3상 실패를 발표한 탓이다.

코오롱티슈진 ‘인보사’가 주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며 품목 허가 취소된 후, 신라젠의 폐사베에 이어 헬릭스미스가 개발중이던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엔젠시스’까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은 컸다. 바이오라면 무조건 추종하던 투자심리도 바이오라면 무조건 기피하는 ‘바이오 포비아’로 차갑게 돌아섰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한국 바이오 산업도 동력을 잃을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잃기엔 이르다. 정부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한 ‘첨단바이오법’을 통과시키고, 바이오를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연간 4조원을 투입하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여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산업의 부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연구와 투자로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가고 있다. 실제 없이 부풀었던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 이러한 진짜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2019 제약·바이오 포럼’을 통해 바이오 산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토종 바이오 벤처들이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 ◆주제 : 다시 바이오-혁신의 파이프라인
- ◆일시 : 10월24일(목) 오전 9시~12시
-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최 : 메트로경제
- ◆등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D공포’ 차단 나선 이주열, 추가 금리인하 시사

경기회복 위해 통화완화 유지
16일 금통위서 인하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다며 “당장 디플레이션 징후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경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며 정부의 재정정책 필요성을 당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은 목표치(2.2%) 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2%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주열 총재는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

의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커지는 ‘D공포’...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를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965년 소비자물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 이후 1999년 외환위기 당시 0.8%, 2005년에 0.7%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만약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0.7% 밑으로 떨어질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0%로 발표됐던 지난 8월도 1년 전보다 0.038% 떨어진 것이어서 사실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저물가에 대한 우려는 국정감사에도 지적됐다. 지난 8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두 달 연속된 마이너스 소비자물가로 본격화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럼에도 한은은 최근 마이너스 물가는 일시적인 요인이고 근원물가 상승과 2%대의 기대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동반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디플

레이션 징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마이너스가 지니는 것은 농수산물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며 “디플레이션을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당장 디플레이션 징후로 보기는 어려워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회복세를 높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만약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커졌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다음주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

당 의원의 질문에 이 총재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경기 회복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리인하 신호를 다시 한번 내비친 셈이다.

한은은 경기 침체 우려와 대외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3년 1개월 만에 인하했다. 올해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단 두 차례 남았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인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다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0.25%포인트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과거와 같지 않아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크다”며 과감한 통화정책의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2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DLF사태 소비자보호 해법은?

미스터리쇼핑 강화... 판매사 펀드리콜제 확대

(암행감찰)

노조 “정책실패가 사태 확산시켜
금융산업, 전업주의로 전환해야”

윤석현 “실효성 높이게 개편할 것”

시중은행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상품 판매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미스터리 쇼핑’이나 ‘펀드리콜제’를 강화·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명을 통해 은행의 DLF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키코(KIKO) 사태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음에도, 여전히 은행에서는 안정추구형 금융소비자에게 위험한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를 제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사태를 확산시켰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부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산업의 겸업주의 정책을 전업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회의원도 시중은행의 DLF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나온 한 DLF 피해자의 경우 해당

상품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인줄 알고 있었고, 은행이기 때문에 믿었다고 말했다”며 “고객의 신뢰를 먹고 사는 은행이기에, 고위험 상품을 팔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파생결합상품의 은행 판매는 유지하되,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

리도 나왔다. 현재 도입된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거나, 일부 증권사에서 시행중인 펀드리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법이 그 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키코에서 파생결합상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스터리쇼핑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이후에도 동양증권 기업어음(CP)사건에 이어 ETF, ELS 관련 분쟁이 이어졌다”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태가 재발했다는 것은 조사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물론, 사후 조치 또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적인 저성장·저금리 기조 흐름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파생결합상품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리콜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라며 “금융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 이후 만기 배리어, 기초자산 등 상품의 구체적 정보와 더불어 고객에게 리콜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펀드리콜제는 2010년 금융당국이 실시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판매사에서 펀드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가 리콜을 신청하면 투자원금을 판매회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포함해 돌려주는 형식이다. 현재는 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 등 4곳이 펀드 이외 대상상품 등을 확대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에 용역 직원을 사용하면 검사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미스터리쇼핑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편하겠으며, 오늘 논의된 여러 대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롯데월드, 어드벤처 파크 5G망 개통

롯데월드 대표 캐릭터 로티, 로리와 모델들이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파크 내 5G망 개통 완료를 축하하고 있다. 오는 10일 부터 최대 3만명이 동시 접속하더라도 끊김 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월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 흑자 폭 줄어

통합재정수지 흑자 9.6조원 기록
전년비 3.1조 ↓... 2년연속 감소세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재정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흑자 폭은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12조7000억원보다는 3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12조6000억원에서 2016년 13조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12조8000억원으로 줄어들고선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비율로 따지보면 2015년 5.73%에서 2016년 5.52%, 2017년 5.03%, 2018년 3.55%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017년 7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4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7.16%에서 5.43%로 1.73%포인트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둔화된 탓이다.

취득세 증가율은 8.23%(23조5000억원)에서 1.39%(23조8000억원)으로, 지방소비세는 13.63%(7조3000억원)에서 2.59%(7조5000억원)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다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97.69%에서 97.8%로 0.11%포인트 높아졌다.

체납액 징수관리를 강화한 덕분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은 2.81%에서 2.49%로 0.32%포인트 줄었다.

/석대성 기자

韓 국가경쟁력 13위... 기업·노동은 하락

세계경제포럼, 141개국 평가

거시경제 안정성, ICT보급 세계 1위
싱가포르 1위, 美 2위, 홍콩 3위 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기업 활력과 노동시장 부문 순위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주저앉았다. 이외에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보다는 뒤지지만, 한국은 국가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0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서는 5위였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12개 평가 부문 가운데 두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다섯 부문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부문도 다섯개였다.

우선 노동시장 순위가 올해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이었다.

기업 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이주열 “올 2.2%달성 쉽지 않아 보여”

>> 1면 ‘D공포 차단 나선...’서 계속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간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준금리는 최저점인 연 1.25%였다.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 한은 ‘실기론’ 등장... ‘나빠질지 몰랐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은의 ‘실기론’도 등장했다. 지난해 말 경기 하강기에 금리를 올려 정책적 판단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경기 하강국면에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지난해 인상할 땐 경제가 이렇게 나쁘리라고는 생각 안 한 게 사실”이라며 “경기

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2.2%)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올해 2.2% 성장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김희주 기자 hj89@



어닝서프라이즈?... 국내외 곳곳에 암초 LG전자

삼성, 시장 전망치보다 10% 넘어 LG전자, 전분기보다 19.7% 성장

메모리반도체시장 침체 여전
수장 경영공백, H수출규제
무역전쟁 등 글로벌 난제 산적
미래먹거리·인재 육성도 제동

삼성전자와LG전자가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어렵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의 7조7000억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7조5700억원) 보다는 56.18%나 줄어든 숫자지만, 전분기 (6조6000억원)보다는 16.67%나 뛰어 올랐다. 7조원 초반대로 쏠렸던 시장 예상도 10% 가량 넘어섰다.

LG전자도 7일 잠정 실적을 공지하며 '어닝 서프라이즈'에 성공했음을 알렸다. 영업이익이 7811억원으로 전년 (7488억원)보다 4.3%, 전분기(6523억원)보다는 19.7%나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양사 실적비결을 휴대폰 사업 호조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에 이어 갤럭시 노트10과 보급형 신제품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성공했고, LG전자도 V50으로 오랜만에 시장



LG전자 올레드 TV 생산 라인. 대부분 기계가 스스로 해낸다.

/LG전자

에 존재감을 부각했다. 아이폰 신형 판매 증가에 따른 계열사 실적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화웨이 파동과 함께, 5G 상용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가트너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도 2020년 2.9% 가량 성장할 전망이어서 국내 스마트폰 업계의 시장 주도력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시장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반도체 부문은 여전히 저조한 성적인데다, 회복될 기미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3분기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3조원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3조6500억원)와

비교하면 5분의 1토막이 났다. 전분기 (4조1500억원)보다도 20% 이상 줄어 들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이 치명적이었다. 메모리반도체는 삼성전자가 D램 판매가격이 전분기보다 10% 후반대 더 떨어졌다고 봤다. 출하량이 20% 후반

대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은 더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 D램 가격 하락세는 다시 시작됐다. 이날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 평균 가격은 3달러 수준이다. 최근 3달러 초반대에서 안정될 듯하다가 다시 떨어졌다.

서버용 CPU 시장이 AMD 신제품 인기와 인텔 공급난 해소 기대가 커진 데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등이 생산량을 줄이는 등 시장 불안 요소를 해소했음에도 가격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안한 글로벌 정세도 문제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IT 분야에서 공동 전선을 형성하려는 분위기다. 인텔이 차세대 메모리인 옵테인을 앞세워 중국 IT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파운드리 업체도 삼성전자보다는 대만 TSMC에 수주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경영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사업지원TF의 주요 임원들이 잇따라 수사로 발이 묶인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달 말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사내 이사 재선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한 비상사태에서도 삼성전자가 실적을 반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부회장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공백으로 퀀텀닷올레드와 시스템반도체 투자 등 미래먹거리 육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전자에는 주력 제품인 올레드 TV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숙제다. 예상보다 판매량을 크게 늘리지 못한 데다, QLED TV와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조기 기능 논란에 따른 판매 감소 역시 LG전자 앞에 드리운 안개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5G에 희비 갈린 이통3사 ARPU가 실적 '구원투수'

(1인당 영업이익)

SKT만 선방, KT·LGU+ 감소 전망
5G 마케팅·투자 등 비용 급증 기인
ARPU 본격 반영... 실적 개선 기대

이동통신 3사의 3·4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와 마케팅비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인당 영업이익(ARPU) 증가 영향이 점차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3·4분기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32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196억원, 16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2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영업이익 하락은 5G 네트워크 투자로 인한 비용 급증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에는 LG V50 S 씽큐 출시에 맞춰 공시지원금 상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5G 점유율은 SK텔레콤 43.8%, KT 31%, LG유플러스 25.2%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 단말 출시 상황에 따라 5G 점유율은 큰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마케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T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합산 마케팅비는 1조929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시장 조사 등의 영향으로 4·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마케팅 경쟁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5G 가입자가 확대되고 ADT캡스와 11번가 등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예상돼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3·4분기 매출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가입자의 고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SK텔레콤은 122만명, KT는 86만명, LG유플러스는 70만명이다.

그간 이동통신 3사의 ARPU는 선택 약정할인제도 도입 등 요금 할인 효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 5G 요금제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보다 2만~3만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가 늘어난 3·4분기부터 ARPU 성장세가 가시화될 수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네트워크 투자와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가 당분간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다만, 5G 가입자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고가의 ARPU가 반영돼 점차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i@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함평 국화와 함께

10.18.금 ~ 11.3.일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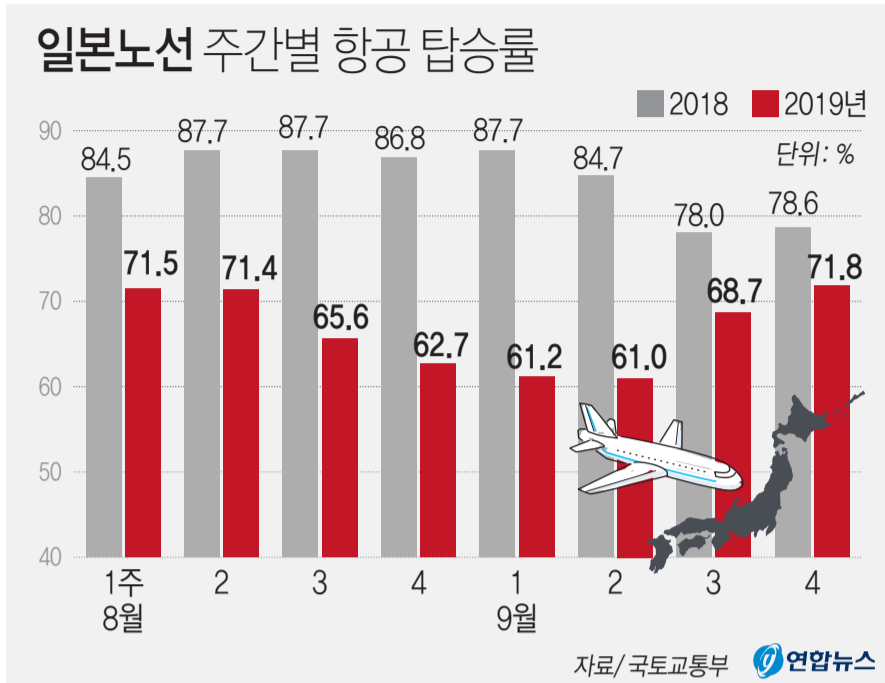
LCC, 中·동남아 시장 개척하지만... 제로섬 늪으로

〈저비용 항공사〉

대부분 LCC업체 영업이익 하락
中·동남아 수요 대비 공급과잉
또 다른 생존경쟁 야기 우려

지난 7월 이후 확대된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악화일로 걷고 있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새로운 활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찾는 중국·동남아 노선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과잉으로 인해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일본노선 주간 항공운송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노선 여객은 135만51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만1905명 대비 28.4% 감소했다. 일본 노선의 탑승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7월 첫째 주 78.5%를 기록했던 탑승률은 ▲8월 1주 71.5% ▲9월 1주 61.2%로 떨어졌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월 1주



13.0%포인트 ▲9월 1주 26.5%포인트 씩 감소한 수치다. 일본 여행 보이콧 여파에 노선 운항 횟수 자체도 줄어들었

지만, 여행객들도 급감해 탑승률이 떨어진 것이다. 특히 단거리인 일본 노선에 집중했던

저비용 항공사(LCC)들은 큰 타격을 면치 못했다.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LCC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하락세에 들어섰다. 저비용 항공사 중 선두를 달리던 제주항공조차 지난해 상반기 580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 295억원으로 절반을 겨우 넘기는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이스타항공도 일본 여행 보이콧 등에 따른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의 제재로 신규 취항도 불가능해 난제에 빠진 모양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새로운 돌파구로 중국과 동남아 노선 공략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달 10일 하얼빈·장자제, 11월 중 베트남 푸꾸옥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며 이스타항공은 이달 중국 2곳과 대만 가오슝 노선 등이 새로 취항한다.

이밖에 에어서울은 장자제·하노이·나트랑, 티웨이항공은 보라카이·타이

중·연길 등 노선을 일본 노선의 감축 대안으로서 신규 취항하고 있다. 또한 에어부산도 기존 부산-가오슝 노선을 증편해 9회 운항하고 있다.

반면 급격한 중국·동남아 노선에의 공급 집중이 또 다른 생존 경쟁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중국과 동남아 노선이 수익이 나서라기 보다는 일본 노선이 줄어들다 보니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노선들은 취항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비행기를 더 띄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수기도 이제 끝나고 3, 4분기 들어가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가 커지고 있는 시장은 맞지만 너무 공급이 집중되다 보니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19 로보월드' 개막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로보월드'에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5G 기술을 활용한 첨단 로봇 시연을 경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4가 독감백신 경쟁 막 올라

GSK vs 녹십자 vs SK '시장 쟁탈전'

〈글로벌〉

〈토종〉

4가백신 비용 전액 본인부담
늦어도 12월까지 접종 권장

국내의 제약사들이 4가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출하가 본격화 되면서 올해 백신 경쟁의 막이 올랐다. 국내에서 3가 백신은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지만, 4가 백신의 접종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 해에도 제약사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며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병원마다 백신 가격이 크게 달라 혼란을 주기도 했다.

GSK는 지난 8일 4가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아릭스 테트라(Fluarix Tetra)'의 출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루아릭스 테트라는 지난해 소아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0.5ml 제형 하나로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전 연령대에 접종 가능한 국내 최초의 4가 독감백신이다.

GSK는 유한양행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올해부터는 녹십자를 통해 플루아릭스 테트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플루아릭스 테트라는 지난 2016년 출시된

이래 3년 연속 국내 판매 1위를 고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임상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가 포함된 독감 고위험군에게도 안전성을 입증한 독감백신이다.

사노피의 백신사업부 사노피 파스퇴르 역시 4가 독감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주'의 공급을 시작했다. 박씨그리프테트라주는 사노피 파스퇴르가 프랑스 내 생산시설에서 원액부터 포장까지 완료해 국내 공급하는 수입 완제품이다. 1만3000명 이상이 참여한 총 6건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유럽,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 4개 대륙)을 통해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소아 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전 연령에서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확인했다.

국내사들도 경쟁에 합류했다. GC녹십자는 지난 달 4가 독감백신 '지씨플루퀴드리벨런트 프리필드시린지주'의 국내 출하를 개시했다. GC녹십자는 지난해 4가 독감백신의 영유아 투여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했으며, 현재까지도 국내 제조사 중 6개월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접종이 가능한 4가 독감백신은 '지씨플루퀴드리벨런트'가 유일하다.

GC녹십자는 독감백신을 국산화한 지난 2009년 이후 줄곧 국내 최대 물량의 독감백신을 공급해왔으며, 이번 시즌에도 약 850만 도즈(850만명 분) 분량의 독감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지난 8월 말부터 '스카이셀플루'의 출하를 시작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 연말과 내년 초 국내에 공급할 독감백신은 약 500만 도즈 분량이다. 스카이셀플루는 국내 유일 세포배양 독감백신으로 최첨단 무균 배양기를 통해 생산돼 항생제나 보존제의 투여가 불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총 2467만 도즈 출하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 유통되는 4가 백신은 10개사 총 11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10월부터 독감백신 접종을 시작해 늦어도 12월까지는 접종을 마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ISA 대물림 수단으로... 4세가 2000만원 가입

〈종합자산관리계좌〉

최근 3년 미성년자 가입 1.7만건 달해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미성년자가 가입이 최근 3년간 1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액은 총 150억원에 이르렀다.

9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ISA 계좌 가입 내역·금액에 따르면 20세 미만 가입자는 ▲2016년 1만2810건, 65억4173만원 ▲2017년 3172건 44억1971만원 ▲2018년 1089건, 40억908만원이다.

지난 3년간 은행별 20세 미만 ISA 가입 총 계좌와 가입액을 살펴보면 2000건 이상 가입한 은행의 경우 ▲신한은행 3405건, 12억8118만원 ▲KEB하나은행 2466건, 19억2908만원 ▲우리은행 2380건, 26억8460만원 ▲IBK기업은행 2340건, 8억4507만원 ▲KB국민은행 2229건, 33억8464만원이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4세 어린이가 하나은행에 2000만원, 5세 어린이가 국민은행에 2000만원을 가입한 사례도

〈3년간 은행별 20세 미만 가입자 현황〉

구분	계좌수	가입금액
신한은행	3405	1,281,181,133
하나은행	2466	1,929,082,831
우리은행	2380	2,684,602,004
기업은행	2340	845,079,575
국민은행	2229	3,384,645,635

/자료=금융위원회

있었다.

성 의원은 "ISA에 가입한 미성년자는 사업소속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소속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부모가 상속세 등 탈루 목적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세제 혜택으로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ISA가 미성년자에게 구분별하게 개설돼 부모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온누리 상품권, 전통상인 아닌 기업손으로

전통시장내 위치해 가맹점 등록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든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기업형 식자재마트의 배까지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버젓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상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온누리상품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기업형 식자재마트 등은 온누리상품권을 받

을 수 없도록 제한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식자재마트 명단 및 하모니마트 상품권 회수현황을 받아 분석,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식자재마트에서 13억3000만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가 2012년 자회사로 편입한



온누리상품권 이미지.

CS유통의 하모니마트에서도 9000만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이 회수됐다.

상품권이 쓰인 하모니마트는 일반상가가 아닌 모두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였다.

/김승훈 기자 bada@

보장성부터 해외여행보험·미세먼지보험·반려동물보험까지

2030 겨냥 온라인보험 ‘춘추전국’… 핀테크사도 가세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온라인보험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네이버페이드도 보험업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의 페이지들이 판매 플랫폼으로서 보험상품 채널링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직접 판매업에 뛰어든 것이어서 보험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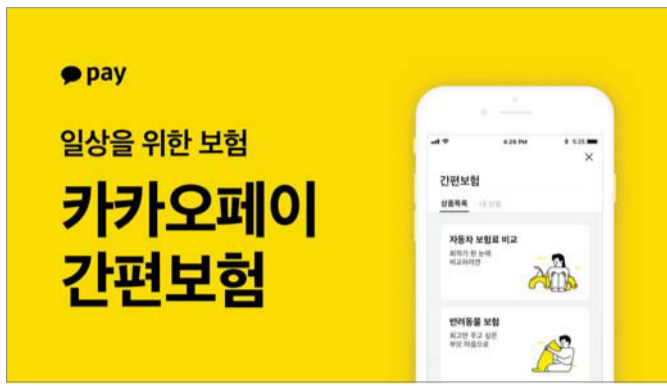
토스, 뱅크샐러드 등 금융플랫폼도 미니보험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보험 판매채널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질세라 전통 보험사들도 온라인보험 시장에서 저축성 보험, 자동차보험 등 위주로 판매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암, 치매 등 보장성 보험과 여행자보험, 반려동물 보험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 직접 보험 판매에 나선 IT기업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자동차 보험료 비교, 반려동물 보험 등 상품을 선보였다. 상품 판매는 GA(법인보험대리점)인 자회사인바 이유가 맡는다.

카카오페이는 복잡하고 접근이 어려웠던 보험의 진입장벽을 낮춰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간편하고 손쉽게 가입부터 청구까지 가능하고, 가입한 보험 상품들은 ‘내 보험’ 내역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NHN페이코, SSG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지들은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확인·비교하고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가입하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출시 복잡한 절차 줄여 가입 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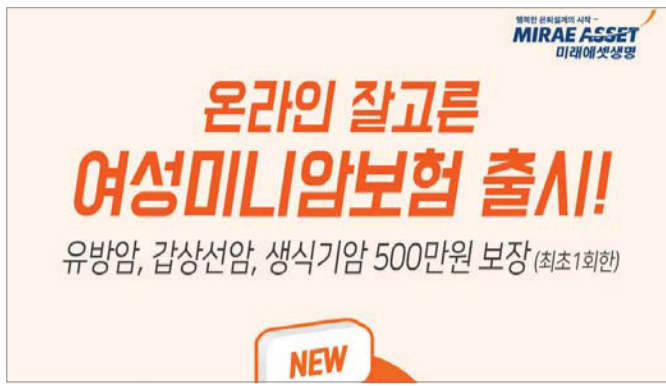
네이버페이드도 보험진출 예고 11월 '파이낸셜' 설립 추진

보험사들, 다양화로 판매 강화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채널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이번 판매업 진출은 기존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직접 판매업에 뛰어든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이날 내놓은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견과 피보험자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고 원하는 보장을 선택하면 가입과 보험료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한 상품이다.

네이버도 최근 네이버페이를 분사해 오는 11월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장해 생활금융플랫폼 형태로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사업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잘고르 여성미니암보험'.

을 넓혀나갈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적인 대면채널 비중이 높던 보험업계에 IT업체들이 진입하면서 토스, 뱅크샐러드 등 금융플랫폼 업체들도 직접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들 기업은 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한 달에 1000원대 이하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1년 만기의 저렴한 미니보험을 중심으로 판매에 나서고 있다.

토스는 해외여행보험, 운전자보험, 보이스피싱보험, 미세먼지보험, 반려견보험 외에 정기보험, 연금저축보험까지 상품군을 다양화했다. 또 부족한 보장내용 등을 분석해 필요한 보험을 추천해주는 보험 보장분석 기능까지 지원한다.

뱅크샐러드도 지난 7월부터 삼성화재와의 제휴를 통해 필요할 때만 컸다 깎다 할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인 '스위치 보험'을 내놔고 미세먼지보험, 교통상해보험 등도 선보였다.

◆ 보험사들도 온라인보험 판매 늘려 보험사들도 금융플랫폼 활용을 넘어서 직접 온라인 보험 시장 확대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등 다액 상품으로 온라인 판매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암, 치매, 반려동물 등 상품이 다양해졌다.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온라인보험 전용 채널인 '삼성생명 다이렉트'에서 종합건강보험 상품인 '인터넷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을 판매 중이다. 다이렉트 채널에서 종합건강보험상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생명도 지난달 다이렉트보험 전용 채널인 '온슈어'를 통해 '100세 착한 암보험'을 출시했다. 한다. 앞서 출시된 'The착한 암보험'의 온라인보험 버전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소액으로 발병률 높은 여성 3대암을 보장하는 '온라인 잘고르 여성미니암보험'을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한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자사 다이렉트로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만 21세 이상의 운전

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한다. 또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도 온라인 펫보험 '애니펫'을 출시했다.

보험사뿐만 아니라 페이사, 금융플랫폼들이 온라인 보험을 확대하고 있는 배경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세대를 겨냥해 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온라인보험은 설계사 등 대면 채널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가입 방식이다. 보험 가입자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켜 저렴한 보험료 제공이 가능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30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 직관 채널 선호도가 다른 세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직관 채널 선호도는 각각 39.5%와 26.9%인 반면 40대와 50대의 선호도는 7.2%와 2.7%에 그쳤다.

실제로 온라인보험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 등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의 초회 보험료는 2016년 92억6800만원에서 지난해 138억6700만원으로 49.6% 늘었다. 온라인보험 가입자 증가로 납입 보험료가 늘어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들의 온라인보험 판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채널로 보험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신한카드, 을지로3가역 '을지로사이' 오픈

신한카드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을지로3가 프로젝트'의 두 번째 결실을 만들었다. 신한카드는 서울교통공사, 굿네이버스와 함께 서울 을지로3가역 '신한카드 을지로사이' 오픈식을 지난 8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정진문 시립서울청소년센터장(오른쪽 첫번째), 김성완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오른쪽 세번째),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오른쪽 네번째),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오른쪽 다섯번째)이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베트남 어학연수생 경비 보증제 고객 유치

우리은행, 1호 가입자 기념 행사

우리은행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제1호 가입고객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는 유학비자 발급심사 시 유학생의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서 시행 예고 후, 지난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에 따르면, 베트남인 유학생은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의 지급유보 방식의 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하고 그 잔고증명서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예치금은 유학생이 한국 입국후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원화계좌로 이체되며, 1년간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 가능하다. 이 보증제도 1호 가입자가 우리은행을 이용했다.

/홍민영 기자

KB국민은행, 일자리연결 실적 1.4만명 돌파

9년째 맞는 'KB굿잡' 일자리 사업 청년 취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여

KB국민은행의 일자리연결 프로젝트 'KB굿잡'을 통한 일자리연결 실적이 1만4000여명을 돌파했다.

KB굿잡(KBGoodjob)은 KB국민은행이 중견-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 1월 출범시킨 일자리연결 프로젝트다.

올해로 9년째를 맞는 KB굿잡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일자리 프로젝트로, 취업박람회-취업교육-취업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선도하는 KB금융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KB굿잡의 대표사업인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비롯해 취업학교-취업아카데미 등을 통한 일자리 연결실적이 총 1만4000여명을 돌파하며 명실공히 일자리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5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던 '2019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는 역대 최대 인원(약 3만8000명)이 방문했으며, 총 250여개 기업 모집에 451개 기업이 참가를 신청해 준비단계



지난 5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전경.

/KB국민은행

부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우량기업의 참여 확대가 청년 구직자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며, 총 2466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취업박람회 채용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기관을 포함한 약 20여개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취업을 제고를 위해 교육과 매칭을 연계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와 함께 취업을 앞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

간의 집중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인 'KB굿잡 취업학교' ▲KB굿잡 취업박람회와 연계해 구직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직무트렌드 분석부터 입사지원서 작성, 모의면접 등 맞춤형 취업교육을 진행하는 'KB굿잡 취업아카데미' 등은 수강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구직자들의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구인 기업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채용 지원금을 확대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IP’ 활용해 글로벌 시장으로… 역습 나선 국내게임

(지식재산권)

중국시장서 韓 게임 영향력 미비

카카오게임즈·엔씨소프트·넥슨 자체 IP나 자사 스타 IP 이용 하반기 신작 개발… 흥행대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중국산 게임이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국내 게임의 영향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당장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도 어려움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 개발로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그간 침체된 국내 게임 시장에 하반기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들이 자체 IP나 자사 스타 IP를 활용한 신작으로 흥행대전에 나서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하반기 신작으로 흥행대전에 나서 국내를 비롯해 글



‘달빛조각사’ 사전예약 300만 돌파 포스터.

/카카오게임즈

로벌 게임 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모바일 게임 분석 사이트 게볼루션에 따르면 이날 기준 모바일 게임 종합순위 상위 20위 중 중국산 게임은 7개에 달한다. 국산 게임은 9개였다.

반면,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의 존재감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5.4% 성장한 1339억6000위안(약 22조5000억원 규모)으로, 전세계 게임 시장의 30.8%를 차지한다.

중국의 인기 모바일 게임 톱10은 대부분 텐센트와 넷이즈가 양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애니메이션, 만화, 소설 등 2차원 문화콘텐츠의 기존 IP를 활용하거나 비슷하게 모방해 재생산한 2차원 모바일 게임 시장은 일본이 71%, 중

국이 24%를 차지했다. 한국은 그 외 5%에 포함돼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 ‘한한령’ 영향으로 게임 관호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선 문화콘텐츠 IP 구축, 후 게임 개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게임사들은 하반기 IP를 앞세워 국내·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흥행대전에 나섰다. 특히 기존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뿐 아니라 자체 IP 게임 출시에도 적극적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게임사는 카카오게임즈다. 10일 출시하는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달빛조각사’는 출시 전 사전 예약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하며,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달빛조각사는 남희성 작가가 2007년부터 처음 시작, 13년간의 연재를 마무리한 인기 판타지 소설 ‘달빛조각사’를 기반으로 제작한 신작 게임이다.

달빛조각사는 지난 사전 예약 시 200만명의 이용자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리니지 아버지’로 불리는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가 진두지휘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달빛조각사’에 대한 인기가 높아 이번 게임으로 추억을 자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소설 특유의 게임 캐릭터들의 레트로한 감성과 아기자기함이 MMORPG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역시 하반기 각각 ‘V4’, ‘리니지2M’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침체된 국내 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리니지2M은 사전 예약 5일만에 300만명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로도 오래갈 수 있는 IP가 중요하다”며 “각 이용자층을 타깃으로 하는 장르 다각화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올레드 TV, 해외 매체서 극찬

美 IT 매체들 “5점 만점에 5점”

8K 올레드 TV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ICDM 8K 규격 지지 목소리도 이어졌다. LG전자는 최근 해외 주요 매체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8K’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7월 국내에 이어 9월에는 유럽과 북미 등 시장에 8K 올레드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LG전자는 출시에 발맞춰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 ‘리얼8K’ 체험 행사를 통해 현지 매체에 올레드 8K 우수성을 소개했다.

미국 IT 매체 ‘에이치디구루’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8K’에 대해 “5점 만점에 5점을 줄 정도로 인상적인 제품일 뿐 아니라 HDMI 2.1, 8K 영상 재생을 위한 업그래더 등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본 최고의 TV”라고 소개했다.

미국 IT 매체 ‘톰스 가이드’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는 지구상 최고 TV”라며 “세밀하게 표현되는 영상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만져보고 싶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TV와 함께 제공하는 업그래더에 대해서도 최신 8K 영상재생 규격을 지원하는 점도 강점으로 소개했다.

프랑스 ‘레뉴메리끄’ 역시 “현존 최고



LG시그니처 올레드 8K TV.

/LG전자

의 8K TV”라며 5점 만점에 5점을 부여했다. “8K 영상재생 기능을 지원하는 ‘업그래더’를 별도로 제공해 사용자 입장에서 확실한 장점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8K 표준 논란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LG전자는 최근 ICDM 기준 8K 해상도 규격을 지적하며, 올레드 8K만이 기준을 넘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IT매체 ‘디지털트렌드’는 “발전하고 있는 TV 기술은 소비자의 구매와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8K 해상도에 관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며 “CTA가 ICDM의 표준에 근거한 ‘8K UHD’ 로고 프로그램을 발표한 만큼 미국 등 세계 표준 관련 기관들이 이를 지지한다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5점 만점에 5점을 줬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냉장고 디자인 함께해 주세요”

삼성전자가 국민들에 비스포크 냉장고 디자인을 묻는다.

삼성전자는 9일부터 23일까지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 디자인 공모전 ‘#BESPOKE랑데뷰’ 온라인 공개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5일 파이널리스트 10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파이널리스트를 11월 14일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3명을 선정, 상금과 상품 수여와 내년 4월 밀라노 가구 박람회 전시 및 양산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시장 세계 1위

올 상반기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 18% 점유율… 전년 동기비 5%p ↑

삼성전자가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주사율 100Hz 이상) 시장에서 금액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 포인트 상승한 17.9%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게이밍 모니터를 처음 출시한 이래 4년도 되지 않아 1위에 오른 것이다.

특히, 고해상도(QHD, 2560×1440 이상)와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카테고리에서는 올해 상반기 각각 30%가 넘는 점유율로 2위 업체와 약 2배 격차를 벌리며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게임 콘텐츠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성능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넓은 화면을 한



삼성전자 모델들이 듀얼 QHD 게이밍 모니터 ‘CRG9’ 49형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눈에 볼 수 있는 몰입감이 장점인 커브드 모니터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제품 구매 시 필수 고려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 출시한 ‘CRG5’는 ‘240Hz 래피드커브’ 기술과 1500R 곡률의 커브드스크린을 탑재한 제품으로 고사양이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CES 2019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CRG9’ 49형은 게이밍 모니터 최초 듀얼 QHD 모델로, 32:9 화면비, 1800R 곡률의 광시야각 패널이 적용된 고가의 제품임에도 게이머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게이밍 모니터 시장은 2018년에 약 500만대 규모였으나, 2023년까지 1000만대 수준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시그니처에 ‘와인셀러·냉장고’ 추가

노크온·오토 스타트 도어 등 탑재

LG시그니처 라인업이 더 풍성해졌다. 와인셀러와 냉장고가 합류했다.

LG전자는 9일 LG 시그니처 와인셀러와 상냉장·하냉동 냉장고를 새로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두 제품 내외부에 스테인리스를 적용하고, ‘사이니 유니버스 패턴’으로 각도에 따라 색다른 빛을 내고 고급스러운 가치를 실현했다.

노크온과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기능도 담았다. 보관중인 음식물 종류와 양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문을 여닫지 않아도 되는만큼 냉기 보존과 에너지



LG전자는 시그니처에 와인셀러와 냉장고를 새로 추가했다.

/LG전자

절약도 돕는다.

오토 스마트 도어도 탑재했다. 음성을 사용하거나 제품 하단 센서를 활용해 상단 도어를 자동으로 열수 있는 기

능이다. 제품 앞에서 ‘하이 엘지’ ‘냉장고 도어 열어줘’ 라고 말을 하거나, 제품 하단에 발을 갖다 대면 사용할 수 있다.

식품 저장 공간도 눈높이에 맞춰준다. 오토 리프트 기능을 통해 제품 앞쪽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래쪽 서랍이 자동으로 열려 위쪽 방향으로 올라온다.

서랍을 냉장과와 냉동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블 드로어 서랍’도 장점으로 꼽힌다.

기본기도 충실하게 갖췄다. 와인셀러와인케이스시스템은 온도케어·습도케어·진동케어로 65병 와인을 최적의 환경으로 보관해주고, 냉장고푸드케어시스템은 24시간 자동정온 기능과 컨버터블 팬트리로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해준다.

/김재용 기자

한 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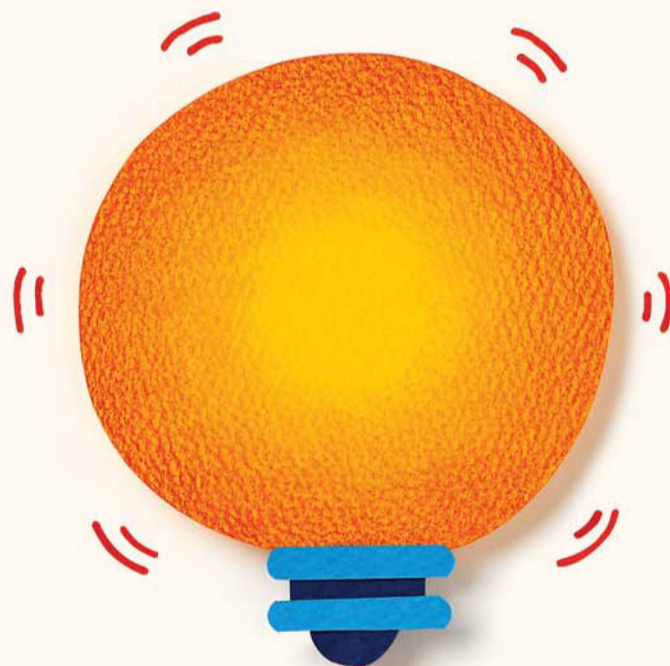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온

:기업과사회가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능성의 스위치를 ON!
온 세상의 행복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을 뜻함

다양한 사회적 가치로
'온' 세상의 행복을 'ON' 시킬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현대제철, 노사 임단협 평행선... 결국 'H형강 감산'

16일 8000여명 48시간 파업
생산중단, 7만톤 철강 생산량 ↓
이달말 3분기 실적 발표 예정

노조의 파업선언과 건설경기부진 등 악재가 겹친 현대제철이 H형강 감산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오는 16일 오전6시부터 전국고속노조 산하 인천·충남·포항·당진·광전지부 등 5개 지회 조합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48시간 파업을 벌인다.

현대제철 노사는 14차에 걸친 임금교섭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간 임단협은 상견례 이후 3개월째 난항이다. 올해 안에 타결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영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임금 교섭 테이블이 아닌 노사 간 별도기구에서 논의할 것을 주

장해 사측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앞서 사측은 12차 교섭에서 성과급 150%+250만원을 제시했고 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법에 맞춘 임금체계 개편

과 연계해 차기교섭에서 다루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현대차 임금협상 타결 가이드라인에 맞춰 교섭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파업선언으로 생산·출하 등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건설 경기 부진으로 철근·H형강 감산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물량 조절로 재고를 줄이고, 낮은 가격을 반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달 중 철근을 비롯한 H형강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근·형강 등을 생산하는 인천공장, 포항공장을 중심으로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생산 중단으로 7만톤 가량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재고 증가에 철근 유통 가격은 7월 톤(t)당 70만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9월 말 현재 64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수입산과의 가격차는 7월 5만원에서 현재 2만5000원 수준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은 이미 먹구름이 낀 상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10월말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전망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생산을 중단하면서까지 가격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3분기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만 445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3% 줄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LG U+, 동반성장에 2222억원 쏟아

LG유플러스가 중소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5G 시대 통신업계 생태계 선순환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중소 협력회사에 총 2222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서울시 구로구 동반위 회의실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사의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에 500억원, 기술발전 환경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에 500억원 등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동반성장펀드, 신성장펀드 등 경영안정 금융지원 분야에 900억원을 지원한다.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5G 장비 국산화, 신제품 개발

지원 등 LG유플러스 핵심 사업인 5G 분야에서 중소 협력회사들과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회사들과 ▲5G 생태계 선순환 선도를 위한 기술 연구과제 ▲5G 코어망 집선스위치 및 5G 전송망 백홀장비 국산화 ▲5G 장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광선로감시 시스템 개발과제 등에서 협업을 추진해 왔다. 또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5G 서비스와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5G 이노베이션 랩'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회사 지원과 함께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지켜나기로 했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필수 추진 사항으로 제정한 것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국지엠-노조 합의점 찾기 '불발'

사측 기본급 인상·성과급 지급 불가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 위기감 확산

일주일간 한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했던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10일 단체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9일 전국고속노동조합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전날 오전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본관 안코르룸에서 10차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의 제시안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 교섭은 합의 없이 끝났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노조가 요구해 온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대신 조합원 1인당 신차 구매 시 차종별 100만~300만 원씩의 인센티브 바우처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급 대상은 재직 중인 직원과 가족으로 사측이 제시한 안은 차종별로 ▲트레일 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바우처 지급



한국지엠 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연합뉴스

안이 미국 GM 본사 최고경영진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기존 요구안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지엠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 전체를 둘러

싼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들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완성차 업체 판매량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지엠은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소비자들도 신뢰도 외면하는 모양새다.

올해 3분기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차·쌍용차·르노삼성·한국지엠)의 내수판매량은 36만2021대로 전년 동기(37만2588대)보다 2.2% 감소했다. 기아차(13만2447대)와 르노삼성(2만3896대)은 각각 4.3%, 11.5% 증가했다.

반면 현대차(16만3322대), 쌍용차(2만4020대)는 4.7%, 9.6% 줄었다. 한국지엠은 1만8336대로 무려 23.0%나 감소했다.

/양성운 기자 ysw@

KT "전국 18개 명산에도 5G 터진다"

남산, 북한산 등에 커버리지 구축

KT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 대표 명산에 5G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KT는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설악산과 오대산에 5G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서울 근교에서 단풍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해 서울 남산, 북한산, 수락산, 아차산, 인왕산에도 5G 개통을 완료했다.

특히 매년 단풍객들이 즐겨 찾는 오대산에는 월정사와 인근 식당가, 주차장뿐 아니라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이어지는 전나무 숲길에도 5G 커버리지를 구축했다.

KT는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4주까지 내장산, 속리산, 덕유산, 주왕산 등을 포함한 전국 약 18개 이상의 명산에 5G 커버



KT 네트워크부문 직원들이 강원도 오대산 내 월정사에서 5G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KT

리지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산과 등산로엔 광케이블 설치가 어렵고 전과 전달이 어려운 지형적 특성 때문에 기지국 설치 공사와 품질확보가 까다롭다. KT는 다양한 환경에서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가을 명산에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고객 체험 커버리지 극대화를 위해 지속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삼성SDS, 블록체인 한국 대표로 선정

삼성SDS는 자사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블록체인 대표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9일 밝혔다.

세계적인 IT 자문기관인 포레스터는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서 아·태 지역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에 기여한 삼성SDS(한국), JD클라우드(중국), NTT데이터(일본), IBM(태국)을 각각 블록체인 대표 기업으로 선정하고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삼성SDS는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로 금융, 물류, 제조, 공공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주

진하고 있고 컨설팅에서 실제 적용까지 다양한 블록체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포레스터는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로 구축한 은행연합회뱅크사인 서비스를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의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뱅크사인은 분산합의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특성을 적용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 서비스다.

물류분야에서는 삼성SDS가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에

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출관련 기관·기업들이 수출품 세관 신고부터 최종 인도과정까지 각 단계별 발생 서류를 빠르게 공유 받고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SDS는 넥스레저, 하이퍼레저 패브리, 이더리움 등 이기종 블록체인 네트워크간 연결을 위해 네덜란드 3대 은행 중 하나인 ABN AMRO, 유럽 최대 물동량의 로테르담 항만청과 '딜리버'를 공동 개발했다.

제조 분야에서는 삼성SDI의 글로벌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 넥스레저를 적용하여 투명하고 표준화된 글로벌 전자계약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10월 배당주 투자적기... 시세차익·배당수익 '두 토끼'

금융·통신·철강 배당성향 높아
하나금융·기업은행·포스코 유망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시기다. 특히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배당주 매력에 부각되고 있다. 다만, 과거 배당률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위주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270개 공모주펀드(7일 기준)로 일주일 새 13억원이 순유입됐다. 최근 한달 간 320억원이 순유출된 것과 비교하면 반전이다.

◆ 몸값 높아지는 배당주

배당주는 10월이 투자 '적기'다. 미리 배당주에 투자해 시세차익과 함께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배당 기준일인 12월 말에 가까워질 수록 재료 노출로 주가는 하락하는 성향을 보인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010년 이후 배당수익률 상위 기업의 10월 성과는 벤치마크를 평균 2.0%포인트 상회했다"며 "상승 확률은 78%로 2013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벤치마크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험적으로 배당기준일인 12월이나 직전월인 11월은 재료 노출로 배당 매력이 오히려 떨어진다"면서 "지난 10년 간 10월에는 우선주 지수가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 하락과 증시 부진도 배당주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증시가 부진할수록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강승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성장 저하, 저금리 구간에서는 이익과 배당이 안정적인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며 "특히 배당 지급이 꾸준하고 매년 배당을 늘리는 배당성장주는 투자가치가 높은 주식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 실적개선주·우선주 추천

다만 전문가들은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상장사들의 실적부진으로 배당수익이 기대에 못미칠 수도 있다. 그간 시가배당률이 높았던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연구원은 "과거 국내 기업들의 이익 둔화 국면이었던 2011~2013년에도 실제 배당액은 컨센서스(예상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배당 컨센서스와 실제치 괴리율은 평균 마이너스(-) 11.3%를 기록했고 컨센서스를 하회한 기업 비중도 5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보다 배당 컨센서스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높은 고배당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배당 성향이 높은 업종은 ▲금융(은행·보험·증권) ▲통신 ▲철강 등이 꼽힌다. 은행 업종은 지난해 배당수익률이 4.2%였다.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을 경

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올해 배당수익률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 철강 업종도 올해 3.7%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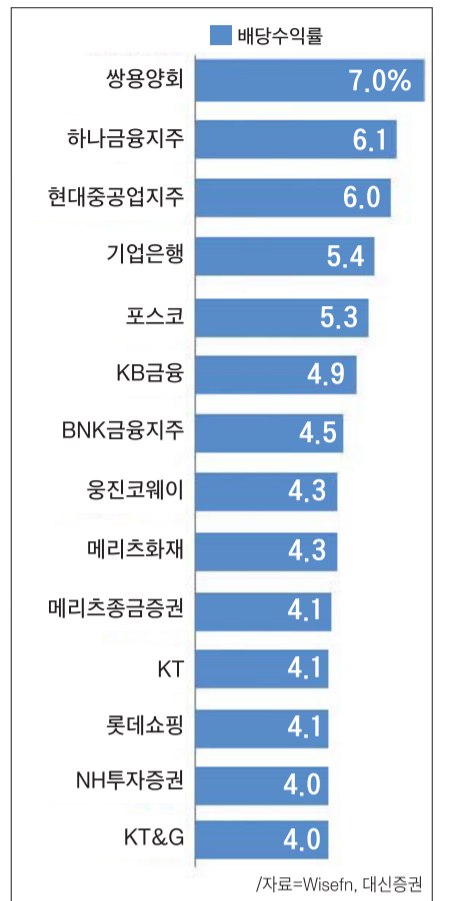
우선주 투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지만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높다. 최근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으로 의결권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5억원 이상인 우선주가 2009~2013년 10개수준이었지만 2015년부터 20~30개 수준으로 늘었고 올해는 이미 40개를 넘어선고 있다. 전체 우선주의 3분의1이 넘는 우선주가 일평균 5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정 연구원은 "트레이딩 차원에서 특정 재료가 돌출될 경우 우선주의 탄력성이 보통주보다 높다"며 "보통주 대비 과도하게 할인 거래되는 우선주에 대해 전술적인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손영지 기자 sonumij301@metroseoul.co.kr

〈2019년 배당수익률 4%이상 예상거래소 대형주 리스트〉



“외국인·기관 배불리는 ‘공매도’ 폐지를”

3분기 총 27.4조 중 개인 1800억 그쳐
외국인 악용사례 늘고 개인 보호못해
금융위 “폐지보다 제도개선 바람직”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공매도 전체 거래에서 개인 비중이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제재 강화를 통한 개선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하지만 개인은 자금도 부족할뿐더러 공매도할 주식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예약결제원의 주식 대차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난해 '공매도 잔액 대량 보유자 공시'를 살펴보면 12만1035건 중 외국인 투자자 공시가 11만6973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올해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3분기 주식 시장(코스피·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27조4000억원.

〈개인과 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대금 및 비중〉

구분	공매도 거래대금(억원)					비중(%)		
	기관	개인	외국인	기타	합계	기관	개인	외국인
2019.03	101,200	2,810	169,917	13	273,938	36.94	1.03	62.03
2019.02	104,856	2,653	171,257	18	278,783	37.61	0.95	61.43
2019.01	85,021	3,327	163,995	47	252,390	33.69	1.32	64.98
2018.04	106,170	3,811	208,006	61	318,047	33.38	1.20	65.40
2018.03	96,042	3,272	176,732	19	276,064	34.79	1.19	64.02
2018.02	106,929	2,663	232,046	42	341,683	31.30	0.78	67.91
2018.01	103,009	1,132	240,640	29	344,811	29.87	0.33	69.79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개인 거래대금은 1800억원에 그쳤다. 수치로 환산하면 1.03% 수준이다. 외국인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공매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에 대해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9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게시글만 3300여건에 달했다. 이 중 최근 추천을 가장 많이 얻은 게시글을 살펴보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선량한 투자자들과 개별 회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기관과 외국인, 증권사만 이익 보는 공매도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제도가 개별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폐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매도 관련 정책 질타에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도 "공매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상황,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인도 등을 검토해보면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 의견에 반박했다. 그는 "금융 선진국을 표방하겠다며 현행 공매도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국내 증시 상황상 뱀새가 황새 따라가겠다는 꼴"이라며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주가 하락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게임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

4분기 전국 11만가구 분양... 전년비 3배 ↑

물량 절반 5만가구 '브랜드 대단지'

올 4분기에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1만73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브랜드 대단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물량이다.

9일 부동산114 에 따르면 올 4분기(10~12월) 분양 예정 물량(임대 제외)은 11만734가구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만3300가구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브랜드 대단지의 경우 대형 건설사의 인지도가 더해져 추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또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대지 면적이 넓어 조경 면적 확보가 유리하고, 관리비 절감 효과도 크다.

대개 신규 분양시장에서 1000가구가 이상 브랜드 대단지는 인기가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브랜드 단지는 규모에 걸맞은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입주 후 인구를 배후수요로 상권과 생활인프라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요자들 사이에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시세 상승 요소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인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달 분양하는 브랜드 대단지는 GS건설·금호건설이 광주광역시

시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무등산 자이&어울림'을 선보인다. 39~160㎡ 2564가구 중 59~130㎡ 164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인근으로 우산근린공원, 우산체육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사하역' 84~114㎡ 1314가구를 분양한다. 서부산권 최초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사하역과 당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인근 신평·장림산업단지 등이 가깝다.

(주)신영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 6블록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 59~99㎡ 1148가구를 분양한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현재 조성이 완료된 1차 지구에 SK하이닉스 M15공장, LG생활건강(2020년 6월 준공 예정) 등이 입주해 있다. 여기에 반경 약 1km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북선전철인 북청주역(예정)이 2022년 개통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금호건설)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1248가구 중 59~101㎡ 90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주시 효자동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주거 밀집지역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화건설 디자인 어린이집 'GD마크'

한화건설이 디자인한 어린이집 외관 디자인 '포레스트 트레인(Forest Train)'과 게이트 통합디자인 '젠틀 웨이브(Gentle Wave)'가 2019 우수디자인(GD·Good Design)에 선정됐다.

우수디자인(GD)은 정부인증제도로

상품의 디자인, 기능, 안정성, 품질 등을 종합 심사해 디자인 우수 상품에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지난 1985년부터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고 있다. 2019 우수디자인에 선정된 한화건설의 '포레스트 트

정부인증 '2019 우수디자인' 선정
기능·안정성·품질 등 종합 '우수'

레인'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주상복합 아파트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외관 디자인이다.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장난감 기차와 열쇠구멍, 오솔길 등에서 모티브를 얻어 외관을 구성했다. /이규성 기자

〈10월 주요 브랜드 분양 대단지〉

사업명	위치	총기수 (일반분양)	전용면적(㎡)	건설사
무등산자이&어울림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564 (1,644)	39~160	GS건설 금호산업
힐스테이트 사하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314	84~114	현대엔지니어링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	충북 청주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 6블록	1,148	59~99	(주)신영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48 (905)	59~101	현대건설 금호건설

패션업계의 파격 변신... 시니어 모델·非전문가 협업

모델 적령기 중·장년층까지 확대
업체들 앞다퉀 시니어모델 기용
패션쇼, 일반인에게 일부 공개



에잇세컨즈 '윈터스타일 100(#WINTERSTYLE100)' 캠페인.

/삼성물산 패션

패션업계가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시도를 단행하면서 다양성은 확대되고,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델 적령기'의 기준이 깨지고 있다. 10대부터 20대까지로 여겨지던 적령기는 최근 40~60대 중·장년층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60대 이상 시니어 모델의 활약상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시니어 모델로서 패션위크 무대에 오른 김철두 씨가 대표주자다. 올해 65세인 그는 데뷔 후 업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패션 화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배우 김혜자 씨는 제조·유통총괄형(SPA) 브랜드 스파오에 이어 코오롱스포트와 손 잡고 모델로 나선다.

'꽃중년'을 앞세운 4050 세대도 전면에서 등장했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최근 평범한 중년 남성의 스타일을 뉴발란스 아이টে이션으로 탈바꿈 시키는 '아빠의 그레이' 캠페인을 선보였다.

은퇴와 전직의 기로에서 있던 중·장년층 모델들이 젊음과 개성을 강조하는 스포츠·캐주얼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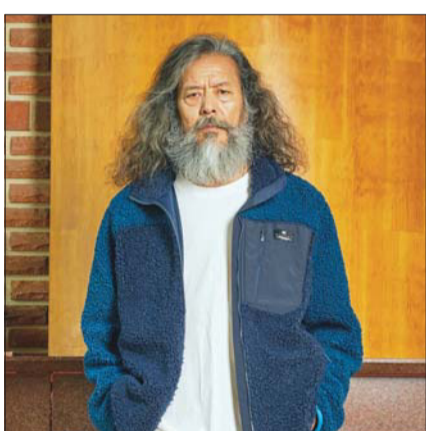
의 얼굴로 떠오르게 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소비와 여가 생활에 적극적인 중·장년층이 늘어나면서 업계가 이들의 구매 잠재력에 주목한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들의 소비에 힘입어 고령 친화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800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27조4000억 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업계는 폭넓은 소비층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년층 모델을 기용함으로써 동세대뿐만 아니라 젊은층의 공감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을 이끌어내고,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전달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패션 업체들은 앞다퉀 유명 시니어 모델을 기용하고, 새 모델 발



밀레 모델 김철두.

/밀레

굴에 주목하고 있다.

모델의 '체형'도 바뀌고 있다. '플러스 사이즈(Plus Size)'부터 '내추럴 사이즈(Natural Size)'까지 모델의 체형도 다양해졌다. 모델은 날씬하고 키가 커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진 것이다.

해외에서 시작된 흐름은 국내에도 심심찮게 흘러들어오고 있다. 액티브 웨어 판매·제조업체 안다르는 최근 플러

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하는 유튜버, 배우 등을 기용해 '모두의 레깅스'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곧 의류 사이즈의 선택 폭 역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쉽게 찾기 어려웠던 큰 사이즈의 옷들을 캐주얼부터 스포츠웨어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어댑티브 패션(Adaptive Fashion)'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도 등장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패션이다.

국내에서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가장 먼저 뛰어 들었다. 패션 대기업 중 최초로 론칭한 장애인을 위한 전문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 '하티스트(Heartist)'는 '모든 가능성을 위한 패션(Fashion for All Abilities)'를 콘셉트로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자기 몸 긍정주의' 열풍이 불면서 현실적인 체형의 모델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이러한 변화에 지갑을 연다"고 말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패션업계 곳곳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벽도 허물어지는 모양새다. 브랜드와 맞닿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내어줌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생태로 변화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는 지난 6월 일반인 모델 콘

테스트 '에잇 바이 미(#8SXME, 8seconds X ME)'를 열고 성별, 국적, 나이, 체형이 제각각인 최종 8인을 선정했다. 이들은 3개월간 에잇세컨즈의 브랜드 모델로서 화보 및 영상 콘텐츠 홍보·마케팅 활동에 나설 기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최종 8인을 포함한 해당 콘테스트 참가자 100인은 에잇세컨즈가 전개하는 '윈터 스타일 100' 캠페인에 모델로 활약한다. 에잇세컨즈는 이번 시즌 스타일 100가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인 모델들의 화보를 5주간 순차 공개한다.

같은 맥락에서 패션업계의 협업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일반인 모델과 마찬가지로, 젊은층에게 인기였고 익숙한 유명인과 협업해 친근감과 개성까지 동시에 공략하는 것이다.

각 분야별 트렌드 리더와 협업을 지속 중인 스포츠 브랜드 휠라도 최근 스니커즈 전문 리뷰 유튜버 와디와 함께 '레비지먼트 플러스 2000 X 와디'를 출시했다. 와디는 국내 대표 스니커즈 수집가이자 마니아인 스니커헤드로 국내 유튜브 스니커즈 리뷰 채널 중 구독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구독자 수는 약 11만 명에 이른다.

높기만 하던 패션쇼의 빛장도 열렸다. 오는 14일 개최되는 '2020 봄·여름 서울패션위크'는 전체 좌석의 5%를 일반인에게 내어준다. 이전까지는 바이어와 유명인 등 디자이너의 초대만을 받았던 사람만 관람할 수 있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 2조3000억

13개월 이상 체납 10만 곳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이 올해 8월 말 기준 52만70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5000개소에서 올해 8월 말까지 7만개소가량 증가했다.

체납액도 같은 기간 1조9469억원에서 2조2973억원으로 불었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에게 원천공

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해당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7만7000개소로 총액은 9945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0만개소로 늘었고, 총액도 1조2188억원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같은 기간 4만7000개소(1조1306억원)에서 5만5000개소(1조2986억원)로 증가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대법 "휴대폰 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매매에 불과... 금전 대부로 볼 수 없어

상품권이나 휴대폰 등을 통신소액결제 방식 등으로 구입하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주고 물건을 넘겨받는 이른바 '상품권·휴대폰 깡'은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방식의 거래는 물건값을 할인해 매입하는 '매매'에 불과할 뿐이고,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금전 대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할인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금전을 준 것은 매매인 할인 매입에 해당하고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인 금전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콩카페... 콜라커피... 식음료업계, 글로벌 커피 열전

커피시장, 완전한 성숙기 들어서
업계 세계 각국 커피로 경쟁력 재고

식음료업계가 성숙기로 접어들어 커피 시장에서 세계 각국 커피를 출시하며 돌고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성인 1인 커피 소비량이 연간 353잔에 달해 커피 시장이 완전한 성숙기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양한 커피를 경험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커피를 여행의 주 목적으로 한 '커피 투어'가 트렌드로 주목받는 등 커피가 단순 기호 식품을 넘어 경험적 가치를 전달하는 콘텐츠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이에 식음료업계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메뉴를 선보이며 높아진 소비자 입맛 잡기에 나서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 '비엔나 커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아인슈페너'는 국내 소규모 커피전문점에서 소개



커피 코카콜라 250ml

/코카콜라

돼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트렌디한 메뉴가 됐다.

다날이 운영하는 달콤커피는 최근 콜드브루, 흑당, 쿠키앤크림 등과의 이색 베리에이션을 통해 아인슈페너를 달콤커피 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신메뉴 '아인슈페너3종'을 선보였다. '콜드브루 아인슈페너'는 꿀과 치즈의 풍미, 쫄쫄한 질감이 특징인 '히니 치즈크림'에 달콤커피의 더치커피(K4)가 어우러져 트렌디하면서도 클래식한 맛을 선사한다.

스타벅스도 최근 아인슈페너 메뉴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크림 치즈가 들어가 쫄쫄하고 부드러운 맛을 더욱 강화한 글레이즈드 폼이 특징이다

이디야커피는 최근 베트남 현지 연유를 사용한 연유커피 2종을 출시했다. '커피 쓰어다'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베트남 연유커피는 부드러운 목 넘

김과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신제품 '연유 카페라떼'와 '연유 콜드브루' 2종은 모두 베트남 현지의 맛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더치 레이디의 연유를 사용했다.

동원F&B는 베트남 카페 브랜드인 '콩카페'와 콜라베이션을 통해 현지의 오리진별 레시피를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개발한 '콩카페 2종'을 선보였다. 콩카페는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카페 브랜드로 '콩카페 코코넛라떼'는 은은한 코코넛 향이 느껴지는 달콤한 라떼로 콩카페의 간판 메뉴인 코코넛 연유커피를 모티브로 했으며, '콩카페 연유라떼'는 연유의 달콤함과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다.

남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에스프레소에 콜라를 더한 이색 음료도 국내에 출시됐다. 코카콜라가 선보인 '커피 코카콜라'는 남미 지역에서 '카페 라샤워' 혹은 '커피 록'이라 불리며 글로벌에서 먼저 출시된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의 '레쓰비 솔트커피'는 단짠의 조화로 잘 알려진 대만의 '솔트커피'다. 부드럽고 진한 커피에 소금을 넣어 단맛과 짭짤한 맛을 조화롭게 느낄 수 있으며, 패키지에 풍등과 타이완 관광형 공식 캐릭터 '오송'을 넣어 대만의 운치를 한껏 살렸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콩카페 2종

/동원F&B



www.newsis.com

뉴스시스 공감언론
NEWSIS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27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200여개



사진기사. 1200~1500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LED 장착’ 발상의 전환... 글로벌 軍시장 정조준

메트로가 만난 기업 안혜리 태경전자 대표

드론에 써치라이트를 장착해 수색, 정찰 등이 가능한 혁신 제품으로 국방 분야를 공략하고 있는 여성벤처기업인 이 있다.

경력이 군대와는 전혀 무관한데다, 사업하면서 만나는 상대방이 모두 남성이지만 집안에서 물려받은 ‘사업 DNA’와 통신, IT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를 위해 쓴 조명탄 값만 160억원이 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활용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드론에 고휘도의 LED를 장착한 제품이 당시에 있었다면 예산도 크게 줄이고, 수색하는데도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공교롭게도 안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태경전자를 창업했다. 초기부터 운이 좋게도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 방산회사로부터 특수공정 인증을 받아 군용 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기술력은 물론이고 군수품 특성상 방

수, 방진 등의 특성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튼튼하게 제작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신생회사가 대기업들과 거래선을 트며 당당히 방산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군인들이 훈련이나 실전에 쓰는 골전도 헤드셋, 이어셋이 태경전자의 초기 작품이었다.

부품 국산화에 전념하던 안 대표는 드론 기술에 조명탄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융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후 곧바로 드론써치라이트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 결과물은 바로바로 특허 출원·등록을 했다. 그렇게 출원·등록한 특허만 10여 건에 달한다.

“써치라이트가 달린 드론은 외국에도 없다. 중국 DJI가 세계 드론시장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술력으로 드론써치라이트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에선 조명탄이나 야간 작업등을 대체할 수 있고, 해병대 상륙작전, 대테러, 감시·정찰 등 활용 범위가 넓다. 게다가 119 재난시나 조난 구조 등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

안대표가 연구실에서 관련 부품들을 들여보이며 설명했다. 드론에 방충장비를 장착하면 심리전이나 재난시 방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안혜리 태경전자 대표가 경기 안양에 있는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드론써치라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태경전자의 드론써치라이트는 비행시간이 약 25분 전후, 그리고 LED 써치라이트는 촛불 5만2000개와 맞먹는 밝기를 자랑한다.

안 대표는 드론써치라이트를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9’에서도 선보이며 기술력을 뽐낼 예정이다. 올해 ADEX는 34개국에서 430개 업체가 참가해 각종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출품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안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군대와는 거리가 먼, 그것도 드론과 써치라이트를 융합한 제품을 탄생시킨 그의 DNA가 궁금했다.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때 산판을 크게 하셨다. 당시 운전기사도 따로 돌정도였다. 그러다 6·25 전쟁이 나면서 사업을 접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안대표의 사업 DNA는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주부로 살던 그를 사촌동생이 다시 사회로 끌어

들었다.

“컴퓨터를 켜면 감전이 되는 줄만 알고 있던(웃음) 내가 사촌의 권유로 용산에서 PC방 사업을 했다. PC방이 처음 생겼을 무렵이었다. 그러다 유선통신과 광케이블이 생기면서 통신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영업을 잘 하니 통신회사에서 아예 한 지역을 떼 주더라. 휴대폰 도매상, 통신회사 기지국 공사, 구내통신 유지 보수 등 지나고보니 통신업계에서만 16년 정도 일을 한 것 같다.”

회사를 세우고 처음에 통신 관련 제품을 자연스럽게 만든 것도 그의 이같은 이력과도 무관치 않다.

그가 드론에 달기 시작한 써치라이트의 빛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역시 통신의 ‘통(通)’과 같은 맥락이다.

“야간비행을 위한 드론에 값비싼 적외선 카메라를 모두 달 필요가 없다. 드론에 HD급 카메라와 써치라이트를 달면 성능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게 국내 기술의 경쟁력이다.”

드론써치라이트의 장점을 한참 설명하는 그에게 여성으로서 사업하기엔 어떠한 우문을 던졌다.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성취감이 크다. 무엇보다 사업이 재미있다”는 현답이 돌아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CSU) 윌슨 칼리지에서 열린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왼쪽 세번째부터)김익환 한세실업 대표와 데이비드 힌크스 윌슨 칼리지 총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실업

한세실업, 세계 1위 섬유단과대와 ‘맞손’

美 윌슨 칼리지와 산학협력 MOU

한세실업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CSU) 윌슨 칼리지와 산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1889년 개교한 윌슨 칼리지는 미국 내 섬유 생산 2위를 차지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해있다. 미국 상위 100위 대학에 선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종합대학교에 속한 세계 1위 섬유단과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한세실업은 MOU를 통해 NCSU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 방문 프로그램을 비롯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 NCSU 학생들이 발행하는 매거진 출판물 공식 후원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여기에 NCSU의 다양한 산학협력 기업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패션 트렌드 및 기술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 새로운 섬유 소재 개발 진행 등 중장기적인 프로그램까지 계획돼 있다. /김승호 기자

유한김벌리 ‘디펜드 언더웨어’ 2종 출시

유한김벌리는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와 디펜드 안심플러스 언더웨어(사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요실금 언더웨어 ‘디펜드’가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북 충주공장에 요실금 언더웨어 2호 신설비를 투자, 본격 가동에 들어면서다.



새로운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는 허리와 복부가 밀착되는 부위에 더욱 부드러운 허리밴드와 소프트 슬립핏 등의 고품질 소재를 사용하고 체형에 딱 맞도록 힙 전체를 감싸주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마치 속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디펜드 안심플러스 언더웨어는 기존에 없던 옆샘 방지막을 새롭게 추가했다. /김승호 기자

‘취임 6개월’ 박영선, 국감 데뷔 성공적

(중기부 장관)

“주52시간 시행으로 현장 애로 동의” 제로페이 실효성 의문에 “시대 흐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첫날을 큰 해프닝 없이 조용히 마무리했다.

이날 취임 6개월 차를 맞은 박영선 장관은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정책 질의에 차분히 답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문제 지적에도 당황하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제로페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 등 중기부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영선 장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막힘없이 답변을 내놓았다.

주 52시간제도 연속착륙 문제에 대해 홍의락 의원의 “200인 이상 기업은 준비가 좀 됐는데, 100인 이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안다. 장관의 복안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주 52시간 제도는 299인 이하 전체를 보면 준비가 안 된 기업이 30%, 제조업만 보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 50% 가까이 된다”며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국회 입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제로페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핀테크 시대를 준비하는 ‘시스템적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정리했다. 김정재 의원은 “제로페이가 40% 소득공제를 해도 불편하다. 장점이 없다”며 “신용카드가 소득공제 15%고 체크·현금카드가 30%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제로페이)에 대한 신뢰를 밀어붙일 것인가”고 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제 모든 결제수단이 모바일 직불결제로 넘어간다”며 “신용카드가 좋다고 거기에 취해있으면 핀테크 발달 속도가 떨어진다. 정부는 신기술이나 신결제시스템에 대비해 인프라 투자하는 것이 역할이다. 항상 정점에서 다음 것을 준비하는 시스템적인 정부의 역할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공직 기강에 대한 매서운 질책도 이어졌다. 산자위 위원들은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의 직원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감사를 앞두고 술자리를 가진 중기부 간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청년일자리 채용실적 허위·과장 보고 등 문제를 질으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이 김동열 중기연 원장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며 “장관님이 (김 원장을)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고 있다”고 묻자 박 장관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차분히 대응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기부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가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에 5000만원 후원을 약속했다.

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권혁홍 대표는 5000만원 후원을 약속하면서 “연말연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중소기업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의 이번 기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확산 운동을 위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앞장서 7000만원의 정기후원을 약속한 이후 처음이다. /김승호 기자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왼쪽)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5000만원 기부 약정을 하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글 깨친 힘으로 산업·민주화 이뤄”

文 대통령, 한글날 SNS 메시지 광화문서 ‘한글날경축식’ 열려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이 됐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관계자들이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573돌을 맞이한 한글날과 관련해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고 국민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945년 무려 78%였던 문맹률은 13년이 지난 1958년 4.1%로 줄었다”며 우리글의 힘으로 산업민주화를 이뤄냈음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한글이 대한민국이며 한글이 우리를 세계와 연결한다”며 “간도·연해주·중앙아시아·하와이를 비롯해 우리 민족이 새로 터를 잡은 곳에서는 어디든지 학교부터 세워 한글을 가르쳤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도 전세계 180개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열기가 아주 뜨겁다”며 “국경을 넘는 한류의 밑바탕에 한글이 있었다. 우리말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며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했다”고 한글·독립운동의 상관관계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같은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3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해 “573년 전 오늘 세종대왕은 백성이 쉽게 익혀 편하게 쓰도록 한글을 만들어 퍼내 줬다”며 “한글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 겨레에게 열어줬다. 세종대왕의 뜻은 이뤄졌다”고 했다.

이 총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매우 높은 문자해독률과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것은 쉬운 한글과 뜨거운 교육열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그런 바탕이 있었기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계속해서 “세계에는 약 3000개 민족이 7000개 언어를 쓰며 산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인류가 쓰는 글자는 28개만 남았다. 그중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확실한 글자는 한글뿐”이라며 우리말의 위대함을 부각시켰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정부, 유엔총회서 韓 수출통제 우수성 홍보

日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알려

정부가 유엔 총회를 무대로 한국 수출통제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를 계기로 삼아 8일(현지시간)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대행사는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앞서 일본은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를 문제로 삼은 바 있다.

행사는 아시아·태평양수출통제협회(CAPTCIS), 전략물자수출자연합(SI

EPS)과 공동으로 열렸으며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에 관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기조발언에서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형 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제도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주요 회원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신형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손가락으로 농작물 환경 확인·제어 자연·체력한계 극복 ‘똑똑한 농부’

100세 시대 5060 신중년이 된다
직업탐색 가이드

4 귀농귀촌플래너·스마트팜운영자

베이비부머 세대 64% 귀농 생각 성공적 정착 돕는 멘토역할 중요

◆귀농 귀촌플래너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64%가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4년 귀농 귀촌가구는 4만4586가구로 전년대비 37.5%가 증가했다. 그러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귀농귀촌에 실패해 도시로 재이주하는 역귀농, 역귀촌 비율도 8.3%에 달한다.

때문에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역, 주변 여건, 소득 창출을 위한 작물재배와 판매·유통 등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멘토가 바로 귀농·귀촌 플래너이다.

관련 교육과정은 주로 귀농·귀촌에 대한 과정이 많은 편이다. 주로 지역 귀농·귀촌지원 센터나 사립 아카데미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 귀촌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고, 상담 및 컨설팅 기법 교육을 더해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다.

천안연암대학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코디네이터 교육을 필두로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 주도로 귀농귀촌코디네이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참고로, 단순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은 2014년 신설된 귀농귀촌종합센터 관리 아래 민간기관 공모교육도 실시 중이다.

이선행 서울귀농아카데미 원장은 “귀농귀촌플래너는 농촌 지역에 대한 지식과 농업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라며 “귀농 귀촌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사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달, 자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마트팜운영자(스마트파머)

‘손가락 하나로 농사를 짓는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역시 손안의 똑똑한 기기 스마트폰이 있으면 가능한 세상이 됐다. 바로 스마트팜 운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플래너와는 또 다른 직업, 바로 스마트팜 운영자다.

실제 세종시에는 2014년 말 창조마을 시범사업장 ‘스마트팜(지능형 비닐하우스 관리시스템)’이 100개 이상 설치됐다. 스마트파머는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닐하우스를 수시로 오가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온도 확인과 제어를 하며 농작물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팜은 농사짓기에 노후가 없지만 귀농을 원하는 베이비부머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부도 자연 앞에, 그리고 체력적 한계 앞에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데 스마트팜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팜은 농사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지능화된 농장 또는 그제 적용된 기술을 말한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햇빛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구동해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가 가능하고,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현재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시범 농장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고 스마트팜 설치비용이 상당하므로, 농촌진흥청 등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부와 지역에서 관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계획이어서 앞으로 진입 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바라봤다. /손현경 기자 son89@



지난 8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읍 관동 도로에서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차량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5곳 중 1곳 적자·저매출 시달려

편의점 5개 중 1개가 적자·저매출 고착화 위험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편의점 국내 주요 3사(CU·GS25·세븐일레븐)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맹점주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매출 150만원으로 이른바 ‘저매출 위험구간’에 해당하는 점포가 전체 3만 3068개 중 47.8%에 달하는 1만 5819개에 달했다.

이 중 영업이익이 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저매출구간’으로 불리는 일매출 110만원 미만 점포의 비율도 전체 20%에 해당했다. 총 6646개 점포다. 국내 편의점 3사의 다섯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업계에서 월 매출 3100만원(일매출 100만~11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월 70만원 안팎의 적자임을 감안한 수치다.

특히 일매출 80만원 미만으로 적자 폭이 더 심각한 수준인 ‘초저매출 점포’는 전체의 6.7%인 2228개로 집계됐다. 희망폐업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우 의원실 설명이다.

경영 악화 상태는 최근 3년간 개선되지 않은 채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맹점주의 경영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석대성 기자

경기북부 ASF 발생지 완충지대 설정

농식품부, 남하 방지 집중관리

정부가 3일 이후 6일간 추가 확진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를 막고자 기존 발생지 주변을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지대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 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완충 지역은 수평 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완충 지역의 사료 차량은 발생 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

한다.

방역 당국은 완충 지역과 발생 지역, 완충 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조치를 세워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축산차량뿐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능가 출입이 통제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야 한다.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은 집중적으로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막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 발견하고자 지역 내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서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벌인다. 도축장과 사료 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해 분변·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석대성 기자

서울 K초교 공사 자재 납품 비리 의혹 “공사 끝났는데, 대금 못 받아”

**법원에 대금 지급명령 신청
비전문가가 관급자재 선정,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지적**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교실 바닥 교체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 자재를 쓰도록 했으나, 이게 무산되자 무더기 하자를 제기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전문가가 학교 관급자재를 선정하거나, 허술한 학교 공사 관리감독 체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K초등학교는 지난 8월 여름 방학 중 학교 교실 바닥 교체 공사를 발주해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대구 소재 H업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원청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 상태다.

H업체 대표 L모 씨는 “최초 설계도면에 적용됐던 S업체의 이중 바닥 마루틀 시스템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아 결국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자재로 교체했다”면서 “이후 학교 측이 터무니없는 하자(87곳)를 문제 삼으면서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L씨는 최초 설계에 반영된 자재를 제공한 S업체는 원청업체 측에 과도한 견적금액을 제시해 학교측과 큰 다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S업체는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됐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고, 원청업체는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해당 자재를 사용할 것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에서 사용된 교실 바닥재 또한 조달청 우수제품과 비교해 성능은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 다른 업체 바닥재가 사용됐다. 바닥재는 학교측이 제시한 3개의 자재 비교표를 놓고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7명이 투표로 선정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고강도탄성 마루판(규격: 8TX94WX800 L)은 비교표에 있는 조달청 등록 신기술 개발 우수 제품인 복합마루판(15TX140WX1200 L)과 비교해 내구성과 안정성, 저소음성, 통풍성 등에서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단가는 5만3000원으로 복합마루판(4만5100원)보다 비싸다. ‘운동장 환경개선 및 본관 교실 바닥교체 공사’ 바닥재 선정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이 ‘물에 강하다고 하니 첫 번째 제품이 마음에 드는 것 같다’고 하자 다른 위원은 ‘저도 그래서 괜찮은 거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그러면 물에 강한 첫 번째 자재로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를 엿볼 수 있다.

특히 해당 자재를 최초 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를 해당 초등학교 관할청인 서부교육지원청이 추천해 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기관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시설팀 담당자는 “K초등학교 측이 설계사무소 추천을 해달라고 해 같은 시기 K초등학교 다른 공사를 맡았던 설계사무소를 추천해 줬다”면서 “특정 자재 납품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삼육대 ‘이경송 음악자료실’ 개관

삼육대학교 학술정보원은 원내에 ‘이경송 음악자료실’을 조성하고 7일 VR학습장에서 ‘감사예배’를 열었다고 밝혔다. 9일 밝혔다.

이경송 동문은 1956년 삼육대 전신인 삼육신학원을 졸업하고,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이듬해부터 50년간 클래식 음반과 다큐멘터리 영상을 모아왔다. 그러다 2002년 음반 20장자를 삼



이경송 동문(왼쪽)과 부인 엄기옥 씨와 자료실에서 기증품을 둘러보고 있다. /삼육대

육대에 보낸 것을 시작으로 DVD, CD, LP, LD 등 수집 자료를 꾸준히 모교에 기증해왔다. /손현경 기자

서경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서경대학교는 예술교육센터가 서울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성북·강북지역 30개 학교를 찾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6일 미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서경대 예술대학의 교수진이 지도하고 재학생들이 참여해 진행 중이다. 서경대 예술교육센터와 서울시강북성북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지역연계 학교 종합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서경대학교

협약’을 체결한 이후 2회째 이번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엔 총 24개 학교에서 3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음악회에 참가해 공연을 즐겼다. /한용수 기자

법원,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檢 ‘강력 반발’

**서면심사 통해 영장발부 후 기각
운동학원 관련 검찰 수사 차질**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운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풀 단서였던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반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운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운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모두 구속 영장이 발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운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됐다. 조씨는 아울러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씨가 허리 수술을 이유로 7일 재판부에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날 오후 중에는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씨 측이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운동학원 관련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법원이 “주요 범죄의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점에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거나 증거가 부족하

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3번째 불러 조사한 검찰이 조 장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조씨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중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 장애인 차별없이 이용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 유원시설 이용 차별 의견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시각, 뇌병변 등 각 장애인들과 함께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

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의 입장 공유와 이해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에 관해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의 내용,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동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협은 먼저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를 개선(필요한 경우 ‘동반자’ 정도의 호칭으로 정정 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 유원시설에 입장할 경우 비장애인 동반을 요구하는 방

침을 폐지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동반해야만 이용할 수 있거나 탑승 자체를 금지하는 서비스나 놀이시설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모든 장애인이 모든 놀이기구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나 편의를 연구·확충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세 가지 제안사항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및 각 유원시설에서 받아들이고 개선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여가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동 사건과 관련된 진정사건 검토 시 동의견서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경희대 사회과학 연구지원사업 대형단계 선정

경희대학교는 스마트관광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대형 단계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관광이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최상의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관광방식을 말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숙박, 교통, 관광지 등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관광산업과 트렌드를 혁명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스마트관광연구소는 향후 4년 간 ‘스마트관광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스마트관광과 스마트관광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구철모 부소장(왼쪽),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정남호 소장. /경희대학교

오피스텔 수익률 40㎡이하,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수익률 높아... 전주 한옥마을 첫 번째 오피스텔 '전주 스마트하우스' 분양

뉴스 포인트

전주 한옥마을에서 호텔식 서비스 누리는 오피스텔 주목

단일지역 국내 최대 관광객인 연간 1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한옥마을 스마트하우스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 연일 화제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 공급돼 눈길을 끈다. 특히 주목받는 점은 전주 한옥마을 오피스텔은 지난해 전주시가 옛 전주부 4대문 안에 7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을 금지함에 따라 전주 도시내 랜드마크로서 희소성은 물론 조망권 확보에도 유리한 오피스텔이다.

전주 한옥마을내에 모든 행사, 전통성당 전주영화제거리, 전통성당, 경기전, 어진박물관, 전주시청·경찰서, 중앙시장 등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로 주요 관광명소가 생활권에 있어 더욱 쓸모있는 부동산으로 주목받는다.

수익형부동산의 롤모델로 급부상

관광·업무·주거·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유일한 지역의 프리미엄 오피스텔, 특히 스마트하우스의 전문 임대관리 업체와의 계약으로 공실과 수익률에 걱정할 필요가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보장

기존 수익부동산 시장의 단점을 보완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골고루 갖춰

수익형 부동산은 무엇보다 입지 조건, 지금의 부동산 트렌드를 우선 따져야

젊은 나홀로족 매년 증가해 전월세 거래 활발, 수익률도 높아

장·단기간을 희망하는 수요가 풍부해 대 중대형 오피스텔보다 적은 금액에 쉽게 투자상품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소형 오피스텔은 전월세 거래도 활발하며, 수익률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또는 2인가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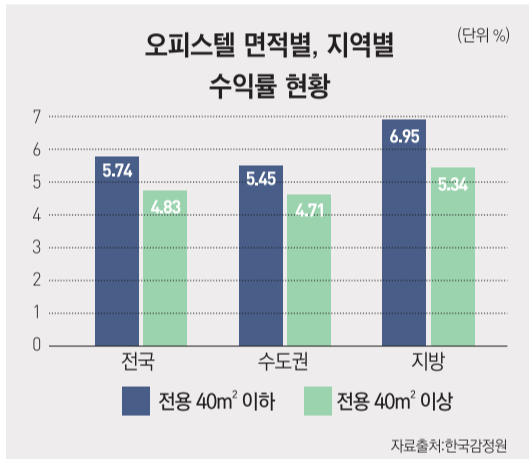
연도	1인	2인
'00	55.5	34.6
'05	20.0	42.2
'10	23.9	48.2
'15	27.2	53.4
'16	27.9	54.0
'17	28.6	55.3
'18	29.3	56.5

1.2인 1인



전주 한옥마을에서 글로벌 체인 호텔의 서비스와 편의시설 누리는 오피스텔 체계적인 임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 인기

수익형 부동산 반드시 팩트로 확인



한국감정원의 오피스텔 수익률을 살펴 본 결과, 8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46%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수익률은 각각 4.86%, 5.22%, 6.47% 등을 기록했으며, 이는 올해 1월 (4.97%, 5.31%, 6.52%)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수치다.

반면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의 평균치를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용면

적 40㎡ 이하 전국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5.74%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용면적 40㎡ 초과(4.83%)에 비해 약 1%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이하 소형오피스텔은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각각 5.45%와 6.95%로 나타나 지방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1.5%이상 높은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발길이 지방으로 몰리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부동의 최강자 소형

소형 오피스텔의 주 수요층이라할 수 있는 1인 가구가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29.4%로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31.89%, 2035년 34.60%, 2045년 36.29%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인가구의 증가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소형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자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수익률과 세금까지 따져본다면 40㎡이하 소형을, 서울·수도권보다는 지방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높아진 집 값 부담에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수요마저 가세한다면, 좋은 입지 조건을 배경으로 한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에서 호텔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조성되는 '전주 스마트하우스'는 오피스텔

과 호텔,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로 지어진다. 이곳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9층 규모에, 전용면적 18~22㎡ 총98실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콤팩트한 사이즈를 선호하는 1~2인 가구에 맞춰 전용면적 18~22㎡의 원룸형 오피스텔로 설계된다.

여기에 콤피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전기쿡탑, 흡오토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옵션이 빌트인으로 마련돼 공간 활용은 물론 입주자 만족도까지 극대화한다.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전주한옥마을이 약 370m 거리에 위치하며 전통성당, 전주영화제거리등주요관광명소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CGV, 메가박스, 전주시네마등의 문화시설은 물론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중앙시장, 전주시청등도 도보거리에 위치해 주거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내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249실이 같이 조성되다 보니 호텔의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입주자는 필요에 따라 호텔의 조식 서비스와 청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내 위치한 피트니스센터와 코인세탁실, 파티룸, 키즈풀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전주 스마트 플러스'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택임대관리 브랜드인 '스마트하우스'와 주택임대관리 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과 계약자에 한해 호텔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7회 무료 이용권과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549번지 2층에 있다.

부동산경제팀 1600-6921

시청 바로 앞 오피스텔 회사보유분 특별 공급 공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전주시 건축과[2017-건축과-분양신고-7] (2017. 11. 24)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2017-건축과-신축허가-5(1993-건축과-신축허가-35)]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 중 일부 호실에 한정

사업명	전주 한옥마을 스마트하우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사업지	주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03-3, 603-6
대지면적/연면적	2,704㎡ / 20,711.48㎡
공급규모	지하5층~지하1층(주차장전기실,기계실), 지상 1층~2층(근린생활시설9실)
	지상3층~14층(생활형숙박시설249실), 지상 3층~9층(오피스텔98실)
	주차대수 총 150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실)

구분(용도)	타입	실수	해당층수	실별분양면적				대지 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분양면적
업무시설(오피스텔)	A	35	3~9	18.02	14.92	3.18	29.11	65.23	6.58
	A-1	14	3~9	17.97	14.88	3.17	29.04	65.06	6.56
	B	35	3~9	19.89	16.47	3.51	32.13	72.00	7.27
	B-1	7	3~9	19.83	16.42	3.50	32.04	71.79	7.24
	C	7	3~9	22.60	18.71	3.99	36.51	81.81	8.26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거주 제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 (2018년9월13일 부동산정책과 무관하며, 임대사업등록시 1가구 2주택 해당안됨)
- 홍보관 내방 후 분양 상담 및 정계약 체결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본인신청 시 : 청약신청서(당사배치), 신분증, 도장,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신고서)
 - 대리인 :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신분증, 대리인도장

□청약금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신청금
KB국민은행	349401-04-274501	한국자산신탁(주)	100만원

※상기 청약금은 미 계약시 100% 환불 처리됩니다.

※청약신청 시 1인 1호실에 한정하며, 청약신청금 영수증(무통장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시기바랍니다.

시청 한국자산신탁(주) 시공 (주)이랜드건설 위탁 (주)메리트플러스

문의전화 **1600-6921**



롯데 예비맘 지원 위해 3억 기부
 롯데는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예비엄마를 지원하는 'mom편한 예비맘프로젝트'에 쓰일 3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정상철 대전세종지사 회장(왼쪽부터),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등이 참석했다. /롯데지주

CJ제일제당 '더 CJ컵'서 비비고 알린다

PGA 정규대회 공식 후원
 CJ제일제당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대회인 '더CJ컵 나인브릿지'에서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알린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를 앞세워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나인브릿지 골프장에서 열리는 '제 3회 CJ컵'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제네시스 오픈'을 시작해 이번 CJ컵까지 올해 총 7개의 PGA 대회를 공식 후원하게 됐다. CJ제일제당은 골프 경기장 내 주요 코스 4곳과 갤러리 플라자 등에 비비고 컨세션(Concession)부스인 'Taste Bigo(테이스트 비비고)'를 운영한다. /박인용 기자



CJ프레시웨이, WFP와 제로헹거 캠페인 MOU
 CJ프레시웨이는 국제연합(UN) 구호기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제로 웨이스트, 제로헹거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민희경 CJ제일제당 사회공헌추진단장(왼쪽 네번째부터), 문중석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 우테 클라메르트 WFP 대외협력 사무차장, 임형준 WFP 서울사무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한글날 맞아 '빙그레 메로나체' 무료 배포

빙그레가 새로운 한글 글꼴 빙그레 메로나체를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빙그레 메로나체는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제품 로고 디자인을 소재로 개발됐으며, 빙그레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한글글꼴개발연구원이 자문을, 유니디자인그룹이 디자인을 맡았다. 메로나는 빙그레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아이스크림 제품이다. 빙그레 메로나체는 메로나 아이스크림의 네모난 형태와 산뜻한 맛을 글꼴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메로나 로고에서 영감을 받아 '메' '나' 'I' 문자에는 특별한 사각형 디자인을 삽입했다. 빙그레 메로나체는 빙그레 서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도미노피자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피자 만들기

매월 1회 정기적 행사 진행
 도미노피자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어린이병원과 함께 꿈틀꽃씨센터에서 중증희귀난치질환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이 함께하는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어린이병원 꿈틀꽃씨는 치료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소아완화 의료 프로그램이다. 서울대 어린이 병원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있다. 이번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서울대어린이병원 1층에 위치한 꿈틀꽃씨센터에서 보호자와 피자 메이커의 지도 아래 각종 토핑을 활용한 피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었다. 꿈틀꽃씨센터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은 환자와 보호자의 큰 호응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박인용 기자

우울증



진성오 소장의 심리카페

우울증(憂鬱症, depression)은 기분 장애의 일종으로 우울한 기분, 의욕·관심·정신 활동의 저하, 초조(번민), 식욕 저하, 불면증, 혹은 과도한 수면, 지속적인 슬픔·불안 등을 특징으로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서 적어도 한번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적인 정신과 장애로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우울증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우울증은 정신의학적으로는 하위 몇 가지의 유형이 있고 증상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우울과 관련된 하위 유형에는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주요 우울장애가 있다. 다양한 증상이 있으나 기본적인 두 가지 증상은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과,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거의 매일 지속되는 경우이다. 기타 증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세분화시켜서 불안한 양상을 가지는 것, 기분이 다소 뜨는 조증이나 경조증이 나타나는 흔재성 양상이 있는 것, 맥락과 관련된 양상을 가지는 것, 외적 자극에 기분 반응성이 우세하게 나타나

는 비전형적인 양상이 있는 것, 기분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정신 증 양상이 있는 것, 긴장증이 있거나 산후에 나타나는 것, 특정한 계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흔하다고 해서 우울증 증상이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은 아니다. 단순히 우울한 기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지구에 혼자 살아 남은 것과 같은 수준의 고통을 경험한다. 보통 우울증에 걸리면 집중,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며 심한 경우에는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또한 불안은 흔하게 우울과 동반되어서 같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증상의 빈도로 보면 남자들의 경우 거의 100% 빈도로 우울 기분을 경험하며 다음으로 흥미 상실, 불안, 수면의 어려움, 자살 시도나 의도, 신체적 증상, 초조, 지체, 건강염려, 하루 중 감정의 변화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순서의 빈도를 보이나 신체 증상과 죄책감의 순서가 좀 더 많은 빈도를 보인다. 뇌 과학에서 우울은 우울의 높으로 빠져드는 나선형의 회전으로도 설명한다. 이를 우울의 높으로 가는 하강 곡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하강 곡선의 심각한 문제는 우울 자체가 아니다. 누구나 우울을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 인

생을 살면서 우울하지 않다면 주변에 무심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울해 졌을 때 보통 정상적인 경우 다시 기분을 회복한다. 문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다. 이들은 우울한 감정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울의 높으로 가라앉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나선형의 회전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은 모두 공통적인 나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이 하강 나선의 회전을 거꾸로 돌리는 방법이다. 걱정을 정리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당장 벌어지지 않는 것들을 지워라. 낮에는 밖에 나가 햇볕을 쬐고 적어도 1시간은 운동을 하라. 웃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웃으면 뇌는 웃은 이유를 찾는다. 그러니 억지라도 웃어라. 심호흡을 자주하고 밤에는 꼭 잠들려고 노력하라. 우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행동을 나선형으로 회전시킨다. 행동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 지금 나열한 것을 하면서 적어도 한달만 먼저 행동해 보라. 그리고 두고 보라. 하나 더. 혼자 힘들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라. 우울한 사람이 전문가를 찾지 않는 것은 치료 효과가 없을 거란 자신의 우울한 감정에 속기 때문이다. 자신의 우울감에 속지마라. 결과는 고통 뿐이니. /당신의 마음 연구소장

하이트진로, 베트남 대학 한글날 축제 후원

김인규 사장 CEO 특강진행 등 현지 사회공헌 사업 지속 발굴

하이트진로가 베트남에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현지화 전략을 이어 간다. 하이트진로는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하노이 국립 외국어 대학교(ULIS)가 주최, 주관하는 2019년 한글날 축제에 베트남 법인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3일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 후 하노이 국립 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기업 CEO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 한국 본사의 김인규 사장과 하노이 국립 외대 총장, 학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인규 사장이 진행한 CEO 특강에는 하노이 국립 외대 한국어학과 재학생 300여명



지난 3일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왼쪽)와 쩌티흐영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대 한국어학과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이 참석했다. 특히 강연 자료는 한글로 이루어졌으며 강연도 한국어로만 진행된 한국어학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하이트진로가 2017년부터 진행한 장학지원행사의 후속 행사로 장학 행사 대상 학교였던 하노이 국립 외대 측의 초청 및 제안으로 이루어 졌다. 하노이 국립 외대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어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학과생만 700여명에 달한다. 한글날 축제는 매년 10월 한글날을 맞이해 베트남 북부와 중부 한국어 관련 13개 교육대학 약 3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한국문화주간 행사로 올해로 10회째다. 하이트진로는 2016년 3월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호치민 지사를 개소하는 등 현지화에 노력해왔다. 이번 행사 외에도 장학금 지원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베트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인사

-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지회장 스태트메이니아 김군준 △애들레이드 광동 옥(이상 호주) △시카고 스티브 홍 △라스베이거스 서현교 △롤리 이희옥(이상 미국) △인도네시아 발리 장유진 △캐나다 캘거리 김강민 △일본 히로시마 유연경 △중국 통화 이장군
-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김인수

◆디센터 △편집장 심두보

- 부음
- ▲최병영씨 별세, 최상윤(한화투자증권 청주지점 지점장)씨 부친상 = 8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 ▲명희자씨 별세,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씨 모친상 = 9일 오전 1시,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6시

- ▲이건수씨 별세, 신동우(제19대 국회의원)씨 부인상, 신형섭(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책임)씨 모친상 = 8일 오후 4시4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8시, 경기도 광주 시안가족추모공원
- ▲노동원씨 별세, 최영자씨 남편상, 노진호·진표·영이씨 부친상, 이희옥·허선화씨 시부상, 박선영(하나금융투자 업무혁신실장)씨 장인상 = 8일 오후 8시,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정오

차원이 다른 VIP마케팅... 명품관 '메종 갤러리아' 오픈

대전 도룡동에 VIP 외부 플랫폼

파크제이드 화이트 등급이상 대상 19세 이상 이용... 예약중심 운영

갤러리아가 업계 최초로 VIP 외부 플랫폼을 오픈한다. VIP 마케팅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도이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이하 갤러리아)은 10일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VIP 신규 오프라인 플랫폼인 '메종 갤러리아'를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갤러리아는 1990년 국내 최초로 업계에 명품관 개념을 도입하고, VIP 고객 관리에 특화된 강점을 보여왔다.

'메종 갤러리아'는 백화점 내에 마련된 VIP 전용 공간이 아닌 외부 주요 상권에 오픈하는 클럽 라운지다. 타임월드에는 대전·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루이비통, 구찌, 롤렉스 등 최다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백화점으로 대전·충청지역 매출 1위 백화점이다.

◆오직 VIP만을 위한 클럽 라운지

'메종 갤러리아'의 규모는 연면적 1024㎡(약 310평)에 총 5개의 층(B1F~4F)으로 구성됐다. 타임월드 파크제이드



메종 갤러리아 '포레르빠쥬' 전시 공간(위부터 차례로)과 메종 갤러리아 전경, 메종 갤러리아 라운지. /갤러리아 백화점

드 화이트 등급 이상(연 약 4000만원 이상)의 구매고객의 VIP 고객들만이 주요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1층 홀에서 고객 본인 카드 센싱을 통해 등급을 확인하고 입장하면 된다. 메종 갤러리아는 매주 일요일 휴무제를 선택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또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 VIP 고객들의 쾌적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보장한다. 1층 전시공간 및 지하 1층 가구쇼룸(비어인키노), 카페 등은 일반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은 예약 중심으로 운영된다. 잔여 좌석이 있을 시에는 현장방문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메종 갤러리아'는 '아트 오브제'로 가득한 당신의 고결한 집(Your Noble Home with Artistic Object)'이라는 콘셉트로 백화점에서 벗어나 집처럼 편안함과 휴식을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일정 기간 동안 각기 다른 테마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픈 테마는



'여유'다. ◆팝업 전시부터 주얼리 감별 클래스까지 1층은 명품 브랜드 팝업 및 전시공간으로 갤러리아가 국내에서 단독으로 선보이고 있는 프랑스 가죽 브랜드 '포레르빠쥬'의 전시가 이뤄진다. 대전 지역 최초로 선보이는 '포레르빠쥬' 팝업은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2층 컨셉 스토어는 하나의 테마를 주제로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상품을 큐레이션하여 선보인다. 이번

오픈을 기점으로 11월 중순까지는 일상의 '여유로움'을 지어내는 상품들을 테마로, '루이스폴센'의 조명, '추어로 디자인'의 나비 체어 등 유명 디자인 가구 및 조명과 '이솝', '조말론' 등 일상을 향기로 채울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제안한다.

3층은 개인적 휴식 및 쇼핑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다른 층에 비해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프라이빗룸에서는 예약 고객에게 1:1 또는 소규모 그룹 대상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4층은 바와 멀티스페이스로 고객들이 본인의 취향을 탐구할 수 있는 클래스가 이뤄진다. 와인 시음, 티 클래스 등을 일상적인 취향탐구 클래스를 비롯하여 아트, 주얼리 감별 등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클래스들을 선보인다. 아트 클래스는 국내 유수의 작가 작품을 '가나아트' 갤러리아와의 협업으로 진행한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대전 외에도 타겟·콘텐츠·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VIP 플랫폼 운영을 검토하는 등 업계 내 선도적인 VIP 마케팅을 확대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쿠팡 이사회에 케빈위시 전 美연준 이사 합류

"혁신 최전방 기업... 비전실현 도움 것"

쿠팡은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금융전문가인 케빈 위시 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사가 쿠팡의 새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위시 이사는 "쿠팡은 혁신의 최전방에 서 있는 기업"이라며 "쿠팡의 성장은 놀랍고, 쿠팡의 고객경험은 독보적이다. 이런 회사의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쿠팡의 독창적인 창업자이자 CEO 김범석 대표가 그의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은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전국 고객의 문 앞으로 수백만 개의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으로 유명하다. 특히 쿠팡은 직접 배송망을 갖춘 덕분에 최근에는 수백만 종류의 상품을 자정 전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케빈위시 이사

단 몇 시간 만에 배송하는 새벽배송까지 제공한다. 또 쿠팡은 고객이 구입한 상품을 반쯤할 때 간단히 문 앞에 내놓기만 해도 상품이 완료되는 편리한 서비스도 갖췄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쿠팡은 고객의 삶을 이전보다 100배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미션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고객

에게 쇼핑이 이렇게 쉬울 수 있고, 배송도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면 고객은 어느 순간 쿠팡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쿠팡이 성장하고 혁신하면서 이 미션을 이루는데 위시 이사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시 이사는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연구 업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그는 국제 현안과 정치,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공공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미 스탠포드대 허버 연구소에서 저명 방문 석학으로 선정돼 같은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스탠포드대에 자리잡기 전 위시 이사는 미 연준 이사회 이사였으며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걸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의 대표단으로 활약했다. /신원선 기자



초밥을 구매하는 고객. /이마트

이마트 초밥, 1초에 2.8개씩 팔려

연어·광어 등 냉동 아닌 '생 횡감' 작년 9천만개 넘어 올 1억개 눈앞

'마트 초밥'이 고객을 매장으로 이끄는 '키 아이템(Key Item)'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마트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초밥 판매를 분석한 결과, 날개 환산 기준으로 6500만개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당 약 3개씩(2.78개) 팔리는 셈이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지난해 판매량 9000만개를 넘어 1억개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처럼 이마트 초밥이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프리미엄화를 통해 초밥 품질을 높였기 때문이다.

과거 기존 마트 초밥의 경우 8~10g 내외의 냉동 '네타(초밥용 횡감)'를 이용해 개당 500~800원에 판매하는 날개 판매가 주를 이뤘다. 저렴한 가격 위주로 초밥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 것이

다. 하지만 고객들의 미식 수준이 높아지고 프리미엄 초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고급화에 힘쓰기 시작했다.

이마트는 2015년도부터 날개 초밥을 없애고 연어, 광어 등 초밥을 냉동 횡감이 아닌 생 횡감을 쓰는 등 프리미엄 초밥 라인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2015년도 전체 초밥 매출 중 약 10% 수준이었던 프리미엄 초밥 비중은 2019년 현재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연어 초밥 같은 경우 15년도 전체 초밥 중에서 15~20% 비중을 차지했지만 현재 전체 초밥 중 34%를 넘을 정도로 늘었다.

이미 유튜브를 비롯한 SNS상에서는 초밥 상품들이 이마트에 가면 필히 구매해야 하는 아이템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3~4년 전부터 연어가 슈퍼푸드 인기로 뜨는 동시에 이마트 초밥 품질 향상과 프리미엄화가 맞물려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 현대미술 '순간을 조각에 담다'展

현대백화점이 대형 현대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쇼핑 공간을 넘어 창의적 영감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무역센터점에서 국내 유명 현대미술 작가들과 함께 '순간을 조각에 담다'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시회 기간 백화점 곳곳을 조각·설치예술포인트 미디어아트 등 100여점의 현대미술 작품으로 꾸민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유명 미술 작가

들과 협업을 통해 현대미술을 더 친숙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아트 바이 더 현대(Art x The Hyundai)' 프로젝트의 첫번째 전시다.

이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상무)은 "브랜드와 상품 경쟁만으로는 기존 백화점이나 다른 유통채널과 차별화하기 어렵다"며 "백화점을 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변화시켜 백화점을 찾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무역센터점서 내일부터 3주간 조각·설치예술포인트 등 100여점 전시



“세종, 천민 흥씨와 애뜻한 사랑... 창작무용극으로 만나다”

인터뷰

최혜경 선아예술단 이사장

“세종, 소용의 남자’는 세종 후궁 중 유일한 천민 출신인 흥씨와 세종의 러브 스토리를 창작무용극으로 그렸습니다.”

세종대왕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한글창제다. 그런 성군 세종이 천민을 사랑했다는 역사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적인 색채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무용극을 선보여 왔던 선아예술단이 세종의 애뜻하고 은밀한 러브스토리를 창작무용극으로 선보인다.

최혜경 선아예술단 이사장은 “천민의 신분으로 궁에 들어가 내명부 정3품의 품계인 ‘소용’의 위치에 오른 후궁 흥씨와 세종의 사랑을 춤과 음악으로 그려낸다”며 “흥씨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나, 세종이 그의 오라비인 흥유근에게 유난히 애뜻했다는 기록에서 소용과 세종의 사랑을 유추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24일 오후 8시 광진나루

“

‘세종, 소용의 남자’ 공연 총 4막으로 구성 검무 등 화려한 액션신 신분을 넘어선 사랑 최고의 감동 무대 선사

”

아트센터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될 이 작품은 (주)선아기획이 주관하고 (주)BK 메디텍, (주)시도여행사가 후원한다.

공연은 총 4막으로 구성됐다. 1막은 ‘관저지화’로 태종, 세종(충녕대군), 소헌왕후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최 이사장은 “왕들과 왕후의 스토리로 주로 이뤄지며 화려한 궁중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막 ‘택현’에서 소용이 등장한다. 세종이 왕세자 책봉 전사에서 3년간 생활한 것에 착안, 마을 신과 장터신에 맞물린 군무가 펼쳐진다. 3막은 ‘왕자의 난’으로도 볼 수 있



최혜경 선아예술단 이사장

다. 궁궐 내 권력의 암투 등을 동적인 음악과 움직임으로 선보인다. 최 이사장은 “검무 등 액션신을 화려하게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 공연의 특이점은 4막이다. 4막 ‘빙탄상애’는 소용과 세종의 러브신이 펼쳐지는데, 신분의 차이를 넘고 마침내 이뤄진 둘의 사랑을 하이라이트로 공연이 마무리된다. 최 이사장은 “세종이 소용을 만나기 위한 ‘궁녀모집’이라는 스토리를 넣었다”며 “기존의 무용극들을 벗어난 잔잔한 결말을 의도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과 소용은 신인 신동혁과 선아에



무용극 ‘세종, 소용의 남자’ 주역들

/선아예술단 제공

술단 소속 엄정아가 연기한다. 최 이사장은 “신씨는 문화체육부장관을 거머쥔 신인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많은 믿음직한 무용꾼”이라고 자부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탤런트 노현희가 소헌왕후로 무대에 오른 점도 눈길이다.

연출은 박미경 단국대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가 했다. 최 이사장은 “각 분야해서 최고를 달리는 베테랑 분들이 영상과 조명을 맡아 최고의 감동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1년에 창단한 선아예술단은 대한씨름협회 오프닝을 전속으로 공연하고 있다. 예술단은 ‘세종, 소용의 여자’가 4번째 정기공연이다. 이번 공연을 성공리에 초연하고 향후 그간 공연을 재구성하는 게 목표다. 최 이사장은 “장희빈, 사랑에 살다’도 새롭게 각색해 무대에 올리려 한다”며 “장애인 대상 무용 교육,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춤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사업도 자체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중앙정형외과 이재오 원장과 동국생명과학 진단장비사업부 서정호 팀장(오른쪽)이 ‘모바일CT 파이온 2.0 이미징랩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생명과학-중앙정형외과 업무협약

첨단영상진단장비로 촬영 빠르게 방사선 낮게

‘모바일CT 파이온 2.0’ 도입

동국생명과학은 지난달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중앙정형외과’와 ‘모바일CT 파이온 2.0 이미징랩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첨단영상진단장비 ‘모바일CT 파이온 2.0’은 세계 최초의 척추 경용 의료용 ‘콘빔 실시간전산화단층촬영장치(One Beam CT)’로, 기존 파이온의 성능을 대폭 개선해 사지 관절뿐 아니라 척추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빠른 촬영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방사선 노출량이 낮아 안전성도 높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천 중앙정형외과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척추경용 콘빔 CT인 ‘모바일CT 파이온 2.0’을 도입하고, ‘이미징랩스(의료영상 분석 연구실)’로서 동국생명과학과 함께 의료영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다른 병원 관계자들이 방문해 기기 운영 현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세경 기자

“포지오티닙, HER2 변이 암 극복 가능성 제시”

(비소세포암 치료제)

한미약품 연구결과 학술지 등재 HER2 변이 암종 표적 최적화 확인

한미약품의 항암 혁신신약 ‘포지오티닙’이 EGFR 변이로 발생하는 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종에서 발현된 HER2 변이에서도 우수한 종양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지난 3일(현지시각) 캔서셀(Cancer Cell) 온라인판에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논문은 향후 캔서셀 인쇄본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포지오티닙은 단백질 EGFR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비소세포암 치료제다.

한미약품은 이번 등재된 연구를 통해 포지오티닙이 EGFR 변이 뿐 아니라, HER2 변이 양성 비소세포암을

비롯한 다양한 돌연변이를 동반한 암종에서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EGFR이나 HER2 변이가 발생하면 약물-결합 포켓이 좁아지면서 약물 결합을 제한하는데, 포지오티닙은 작은 사이즈와 구조적 유연성을 가져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5개 암종에서 다양한 HER2 변이 분석을 위해 진행된 역대 최대 규모로, MD 앤더슨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20만명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 결과, 포지오티닙은 가장 강력한 HER2 변이 억제제(TKI)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포지오티닙은 HER2 Exon20 변이 비소세포암 환자들에서 매우 활발한 반응이 나타났다.

MD 앤더슨 암센터의 존 헤이맥 박사는 “이번 연구로 포지오티닙이 복잡한 결합 위치를 가진 HER2 변이 암종을 표적하는데 최적화됐다는 점을 확인했

다”면서 “전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T-DM1(HER2 타겟 항체 약물 복합체)과의 시너지 효과를 추가 입증하기 위한 병용 임상 연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펙트럼은 현재 비소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오픈라벨, 다기관, 단독 투여 글로벌 임상 2상(ZENITH20)을 진행 중이다.

스펙트럼 조 터전 대표이사는 “캔서셀에 등재된 이번 연구 결과는 포지오티닙의 우수한 효과를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됐다”며 “이번 분기 내 ZENITH20 임상의 첫번째 코호트(치료 전력이 있는 EGFR Exon20 변이 비소세포암 환자 대상) 주요 데이터들, 2020년 중순에는 두번째 코호트(치료 전력이 있는 HER2 Exon20 비소세포암 환자 대상) 주요 데이터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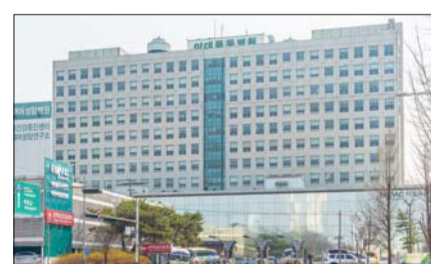
이화의료원,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입주 기업 모집

산·학·연·병 함께 사업 추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22일까지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에 입주할 산학 협력 기업을 모집한다.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는 국제 첨단 융복합 메디컬 의료기술 사업화 및 연구개발(R&BD) HUB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화여자대학교-이화의대-이화의료원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산·학·연·병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화의대의 강서구마곡지



이대목동병원 전경

구 이전 후 이대목동병원 내 의학관에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산학협력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입주할 산업체를 모집하게 되었다.

이번 입주 기업 모집 분야는 제약, 바

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로 오는 14일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문병인 의료원장은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계기로 이화의료원이 글로벌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R&BD HUB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을 선도하고자 산학협력 공간을 마련, 입주 기업을 모집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입주 기업의 R&BD 업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롯데면세점 “즐거움 찾아드립니다”

“너의 FUN은 뭐냐?” SNS 캠페인 자신만의 즐거움을 사람들과 공유

롯데면세점이 10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너의 FUN은 뭐냐?”이라는 주제로 SNS 캠페인을 시행한다.

개인의 FUN한 일상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한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친구 두명을 태그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롯데면세점의 ‘남’ 캠페인은 ‘Lotte

Duty Free’의 영문 첫자인 LDF를 한글로 형상화하여 내국인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이번 ‘너의 FUN은 뭐냐?’ 캠페인도 이러한 FUN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들이 각기 다른 자신만의 즐거움(FUN)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릴레이로 유도하여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 U+, LG트윈스 경기 응원 일일호프 데이

5G 망 8K 초고해상도 관람 프로모션

LG유플러스는 9일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 스포츠팝에서 야구를 즐겨보는 고객 100명을 초대해 'U+5G LG트윈스 응원 일일호프 데이'를 진행한다

이번 일일호프 데이는 LG유플러스 5G 망을 이용해 '2019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를 8K 초고해상도로 관람할 수 있게 마련한 이색 U+5G 프로모션이다. 이를 위해 곧 출시 예정인 LG전자 V50S 씽큐 20대를 마련, 테이블당 1대씩 제공한다.

지난 8월 말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로 프로야구 미디어 플랫폼인 'U+프로야구'의 생중계 서비스에 8K 초고해상도를 접목했다. 4K(UHD)보다 4배, 일반 방송에서 쓰이는 2K(FHD)보다 16배 선명하다.



스포츠팝에서 LG유플러스 고객이 한데 모여 LG트윈스를 응원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특히 안정적인 5G 네트워크 기반에서만 이용 가능한 U+프로야구 앱 5G 특화 기능인 '8K 경기장 줌인' 서비스를 동시에 20대 이상 시연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야구장 전체 화면에서 특정 부분을 최대 8배가

지 늘려 경기장 곳곳을 살펴볼 수 있다. 경기 시작 전과 매 이닝 종료 후 쉬는 시간에는 이벤트를 통해 응원스틱, LG트윈스 정품 유니폼, 유광점퍼, V50S 등 경품도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SK이노, 친환경PR캠페인 글로벌 1억 조회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 편 환경 가치 지키는 경영전략 전달

환경을 생각하는 진정성을 담아낸 SK이노베이션의 기업PR캠페인 B2B 기업 광고로서는 이례적으로 1억 조회수를 넘어섰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월 친환경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회사의 성장 전략을 담은 기업PR캠페인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

스럽다' 편이 론칭 50일만에 1억 조회수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SK이노베이션의 B2B 기업 광고는 일반적으로 B2C 기업 광고에 비해 대중의 관심을 적게 받는다는 점을 극복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진정성으로 1억 조회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 편 기업PR캠페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달성한 1억 조회수 중 국내 비율은 약 15%, 해외 비율은 약 85%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만 1억 조회수도 이달 중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친환경이라는 메시지를 글로벌 고객들 모두에게 통하는 방식으로 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는 광고 슬로건을 통해 환경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기업 경영 전략을 표현했다. /양성운 기자 ysw@

폴더블 폰, 그 다음은



기지수첩

구서윤 (산업부)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터(외형)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행복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폼팩터 변화의 큰 중심은 스마트폰을 접고 펼 수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삼성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는 화면 자체를 접었다 펼 수 있다. 펼쳤을 때 7.3인치 태블릿으로, 접었을 때는 4.6인치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하다. 화면이 넓기 때문에 이 화면을 분할해서 여러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가격은 239만8000원으로 웬만한 태블릿이나 노트북보다 비싸지만 앞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약판매에서 모두 완판을 기록했다. 그만큼 폴더블이라는 폼팩터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LG전자는 듀얼스크린으로 폴더블 폰 대결 구도에 합류했다. 듀얼스크린은 LG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한 탈착식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폴더블 폰처럼 두 개의 화면을 하나로 볼 수 있다. LG전자는 듀얼스크린을 두고

실용적인 형태의 폴더블 폰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LG전자가 듀얼스크린을 처음 공개했을 당시에는 삼성전자, 화웨이의 폴더블폰과 비교되며 혹평을 받았지만 1세대 제품은 뜻밖의 판매 호조로 배송이 두 달가량이나 지연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다.

듀얼스크린의 강점은 가격이다. 올해 초 출시된 첫 듀얼스크린은 21만9000원에 판매됐지만, 이번에 새롭게 내놓는 제품은 LG V50S 씽큐(ThinQ)를 구매하면 기본으로 제공된다. V50S 씽큐는 119만9000원이다.

글로벌 시장도 폴더블 폰과 듀얼스크린 진영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화웨이, 샤오미, 모토로라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 폰을 내놓을 예정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듀얼스크린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 재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술력은 올라가면서 가격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소비자는 스마트폰 구매 시 선택지가 넓어져서 좋다. 폴더블 다음 폼팩터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다.

/yuni2514@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음 9월 12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복이 절로 굴러온다. **48년생** 과유불급이라 약간 부족한 것이 이롭다. **60년생** 원수를 만나다라에서 만났는데 길을 비켜준다. **72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행복할 날. **84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 37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상쾌하다. **49년생** 체면치레하다가 손실이 커진다. **61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 써라. **73년생** 밤을 이겨 내면 찬란한 새벽을 본다. **85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이 오니 우산은 필수.
- 38년생** 하루가 오늘만 같다면 천국이 따로 없겠다. **50년생** 겨울은 결코 혼자 웃지 않는 법. **62년생** 머리만 믿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 **74년생** 소문난 잔치에 나만 초대받지 못한다. **86년생** 가까운 곳에 행운이 있으니 기대가 크다.
- 39년생** 마음이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1년생** 여행을 떠나면 상박을 챙겨라. **63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풀어라. **75년생**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87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왔으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40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52년생** 매사에 정성을 다하라. **64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미리 거절하라. **76년생** 작은 것은 포기하고 큰 것을 노려라. **88년생** 말이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 41년생** 고자 하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53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이 필요. **65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은 과감히 포기. **77년생** 동상에 걸린 발을 얼음물에 넣는 격. **89년생** 부적절한 만남을 경계해야.

- 42년생** 관절 질환이 걱정된다. **54년생** 친구는 내게 보물과 같은 존재이니 잘 챙겨라. **66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78년생** 어려운 일은 동료의 도움으로 해결. **90년생** 마음이 상해도 상사의 뜻을 존중.
- 43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55년생** 행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몸에 지녀라. **67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승패를 좌우. **79년생** 옛 인연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91년생** 적당한 경쟁이 발전의 밑거름.
- 44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일이 수월. **56년생** 산돌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손조롭게 풀린다. **68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경사가 겹친다. **80년생** 모심으로 갈 때는 정화를 신어야 한다. **92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 45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57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69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세탁. **81년생** 비단옷을 입고 걸어도 봐 주는 사람이 없다. **93년생** 선배와 의견이 맞지 않아도 양보.
- 46년생** 무엇을 해도 기분 좋은 날. **58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70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빛나게 하니 좋은 일이 있다. **82년생** 성공을 위해 오늘을 알차게 보내자. **94년생** 자주 만나야 친구간의 정도 쌓인다.
- 47년생** 농천 고기가 커 보인다. **59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71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83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니 경청하라. **95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2		4	9	5		
	5	3						
	4			6	8		1	
7							4	
	9		4		6			
	5							7
6		8	4				5	
				1		2		
5	9	2		8		1		

3		9				7		4
	8				7			6
7			5		8			1
					6			
	3							5
5		4				3		6
	6			4				7
					1		2	
1	9			8				3

스도쿠 정답

4	1	8	9	2	6	5	7	3
9	8	2	6	1	5	4	3	7
6	5	7	3	4	8	1	9	2
2	7	6	8	9	4	5	1	3
1	9	5	4	7	6	3	8	2
8	3	1	6	2	9	7	4	5
1	5	8	9	6	4	7	2	3
2	9	4	7	1	5	8	6	3
5	6	3	2	8	1	9	4	7

문제 제공= **보스**



김상희의四季 유튜버 스타들

현재 핫하게 뜨고 있는 직업이 있다. 바로 유튜버이다. 유튜버는 유튜브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인기를 끌고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크리에이터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직업도 성별도 나이도 관계없이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대는 물론이고 할머니들도 어린아이들도 스타가 된다. 전국적으로 스타가 된 70대 할머니는 평생을 힘들게 살다 새로운 삶을 일궈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그 할머니만 그런 것은 아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게 운세이다. 지금 힘들고 나쁜 상황에 빠져있다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이유가 없다. 당장 눈앞의 상황에 포기하는 건 자기를 스스로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과도 같다. 자기의 삶을 속단하거나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원에 출마해서 두 번이나 낙선한 사람이 있었다.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으며 눈물을 쏟고 절망에 빠졌다. 무슨 말을 해줘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스스로 타타하며 자학을 이어갔다. 다음 선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불운의 수렁에 자기를 밀어 넣고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건 세상과 운세를 넓게 보는 눈이었다. 형국이 변하는 운세를 설명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몇 달의 시간이 걸렸다. 다시 힘을 내어 세 번째 도전한 그에게 당선의 기쁨이 찾아왔다. 지금은 많은 활동을 펼치며 활발히 뛰고 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쳐야 꽃이 피는 사람도 있다.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꽃을 만나지 못한다. 운세(運世)란 변하는 것이고 그 물결에 언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내려앉게 될 것인가는 자신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9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01호

3일 걸릴 서류검토 3시간 만에 똑딱... 'AI면접 전성시대'

**'AI 면접 시스템' 도입 증가
마이다스아이티 독주체제서
대기업·스타트업 등 도전장
내년 기업 300곳 적용 예정**



마이다스아이티가 마련한 AI 면접 체험 부스에서 방문객들이 AI 면접을 체험하고 있다./마이다스아이티

인공지능(AI) 면접이 올해 하반기 채용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개 업체가 독점해오던 AI 채용 솔루션 시장에도 대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뛰어들면서 AI 채용 솔루션 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부산은행·키움증권 등 금융투자업계를 비롯해,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업체, JW중외제약·일동제약·한미약품 등 제약회사, 서울아산병원·길병원·한양대학교병원 등 종합병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육군사관학교 등 공공기업, GS리테일·오리온·현대엔지니어링 등 170여개 대기업·중견기업, 공공기관, 병원 등이 AI 면접을 이미 도입해 직원 채용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LS그룹·농심그룹·지니뮤직 등이 AI 면접을 공개채용에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AI 면접은 이제는 취업 과정 중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 됐다.

AI 면접 시장을 독점해온 마이다스아이티의 AI 면접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이 1년새 45개사에서 170개여개사로 4배 정도가 늘었다.

◆AI 채용 솔루션 시장 경쟁 심화

기업들 사이에서 AI 채용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SK C&C·CJ올리브네트웍스·롯데정보통신 등 대기업들이 AI 자기소개서 분석 솔루션을 개발해 그룹사나 다른 기업에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스타트업들도 AI 채용 솔루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국내 최초로 지난해 3월 AI 면접 시스템 '인어어(inAIR)'를 출시한 후 제품을 판매해왔다. 반면 대기업들은 AI 면접 솔루션으로 선발주자인 마이다스아이티와 정면 승부

하기보다 표절된 자소서들을 손쉽게 찾아주고 우수인재를 추천해주는 AI 자기소개서 분석에 초점을 맞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SK C&C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등 5개 대기업과 5개 중소기업에 AI 자소서 분석 솔루션을 판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에이브릴 HR 포 리크루트'는 AI가 자소서를 분석해 채용기준에 맞는 인재 선발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시스템통합(SI) 방식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구축해준다.

SKC&C측은 "이 제품에 대해 지난해 시범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시간 효율성에서 70% 이상 단축이 되고 일관적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며, 채용담당자의 오차 범위는 6.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30명이 3일 이상 걸리던 서류검토 작업을 3~4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AI가 자연어 분석을 통해 지원자의 자소서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CJ그룹의 서류전형에 의해 공급해 채용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또 롯데정보통신은 언어처리 전문기업 무하유와 공동 개발한 AI 솔루션을 롯데그룹에 제공했다. 이 제품은 자소서를 분석해 과거 지원서 특성을 학습한 AI가 우수인재를 찾아준다.

스타트업 기업인 위드마인드는 AI 면접 솔루션 '아이엠'을 출시했는데, 이를 우선 AI 면접을 준비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에 적용했다. 이 앱은 약 1만 2000명의 면접자 영상데이터를 AI가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인 머신러닝 방식으로 학습해 이용자가 AI 질의에 답하면 면접자의 표정, 목소리, 자세, 단어까지 분석해 개선사항을 제시해준다.

◆'AI 채용, 객관적'... 너도나도 도입

내년에 300여개 기업이 AI 면접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AI 면접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서류전형에 AI를 활용해 자소서를 분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AI 면접 솔루션을 지난해 하반기 도

입한 BGF리테일은 인적성 검사 단계에서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다.

이 회사 인사 담당자는 "오프라인으로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고, 응시자도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아 편리하다"며 "기존 인적성 검사는 '예', '아니오' 등으로 단순한데 AI 면접은 답변도 다양하고 결과도 꽤 상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결과를 반영해 추가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응시자들이 아직 성과를 평가받는 단계는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면 AI 면접 결과와 성과 간에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지 분석할 것"이라며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면 면접 단계를 줄인다거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AI 면접을 앞다퉈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용이 객관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이번엔 AI 면접을 새롭게 도입한 농심측도 "올해 일부 직무에 한해 AI 면접을 추가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직무 적합도를 평가해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I 면접은 명칭과는 달리 아직은 기존 인적성 검사를 대체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실제 면접을 대체하지는 않고 있다./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거짓말 했다간 큰코 다치겠네'... 마음에 없는 답변 집어내는 AI면접관

AI 면접 직접 체험해보니

새로운 고용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인공지능(AI) 면접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토익, 자격증 등 스펙 쌓기에 공을 들여야 하는 가운데 생소하지만 한 AI 면접까지 준비해야 해 부담을 호소한다.

반면 일부 취준생들은 스펙이 좋지 않아 자신을 어필하기도 전에 서류전형에서 고배를 마시는 일이 잦아보이니 오히려 AI 면접을 통해 자신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좋다는 평가도 한다.

다만, AI 면접 과정 중 주어진 게임을 할 때도 녹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표정이나 행동이 녹화돼 취업 당장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이 때문에 과정 내내 억지스럽거나 미소를 지었다는 취준생들도 있다.

노트북과 마주 앉고 헤드셋 착용 안면 등록후 장단점 등 자기소개

취준생들이 호소하듯 AI 면접이 정말 어렵고 부담스러운 취업 관문일까. 기자는 AI 면접을 체험하기 위해 170여개 기업·기관에 AI 면접 솔루션을 공급한 판교의 마이다스아이티를 찾았다.

면접에 임하기 위해 헤드셋을 끼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 체험을 위해 편하게 앉은 자리였음에도 막상 면접을 한다니 긴장감이 몰려왔다. 안면등록 후 기자에게 주어진 질문은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준비하는 자기소개와 장단점 설명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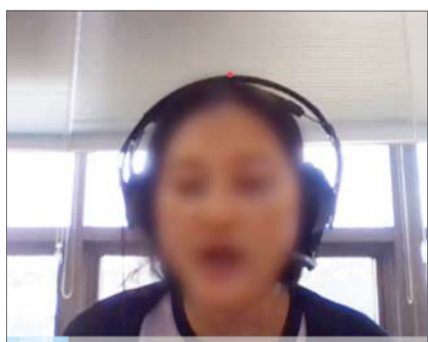
서 큰 부담은 없었다. 기자는 마이다스아이티 영업직에 응시했는데 지원동기를 말하라는 질문이 화면에 떴다.

이후 인적성 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향 질문 100가지가 주어졌다. '내 분야에서 1등이 돼야 한다' 등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6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사소한 거짓말 정도는 쉽게 하는 편이다', '뭇마땅한 사람들을 보면 욕설을 퍼붓고 싶을 때가 있다', '사람들 앞에서 서면 실수를 할까 불안하다' 등 부정적 질문이 나올 때 고민에 빠졌다. 단점을 솔직히 드러내야 할지, 면접에 떨어질까봐 이상적인 모습에 체크해야 할지 하는 것이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성향 체크를 할 때 응시자들이 '자신이 되고 싶은 성향'에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계속 유사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반된 답변을 했다가 '신뢰 불가'가 뜰 수 있어 솔직히 대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회사에서 벌여질 법한 상황 질문 2개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마음이 초



기자가 AI 면접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조해졌다. '평소 당신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는 상사가 본인의 실적 자료에 있던 오류를 슬쩍 덮고 넘어가려는 것을 눈치 채고 말았습니다. 상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주어졌는데 짧은 시간에 답변을 생각해야 하니 당황스러웠다. 상사가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말해야 한다.

유사 질문 많아 상반된 답변 주의 '역량 게임' 아이큐 테스트와 유사

또 주어진 3개의 심층·구조화 질문에서는 '만약 같은 팀원이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하느라 일을 제때 하지 못해도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등 질문에 나왔는데, 실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라 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이어서 주어진 게임은 '보상 선호'였는데 '당장 500원을 받는 것'과 '1개월 뒤 1000원을 받는 쪽' 중 1개월 뒤 받는 것을 선택하면 '당장 750원'과 '1개월 뒤 1000원' 중 고르는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기자는 1개월 뒤 1000원을 골랐으나 950원 이상까지 올라가면 '당장 950원'과 같은 답변을 선택했다.

이후 10개의 역량게임이 시작됐다. 게임이라니 맘 편하게 해도 되나 방심했는데 아이큐 테스트 같이 난해한 것들이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설명을 스킵하면 게임을 도무지 해결하기 힘들니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자에게 배당된 게임은 '색 단어 일치 판

단', '도형위치 기억하기', '감정 맞추기', '공 무게 맞추기', '입깊이 맞추기', '날씨 맞추기' 등이었다.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날씨 맞추기'였는데 고온·습도·풍향·기압 등 4가지 주어진 카드 를 보고 날씨가 좋을지 나쁠지 맞춰야 한다.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걸 몇 번의 게임 후 알 수 있었음에도 당황한 상태에서 규칙을 파악할 여유가 없었고 결국 찍을 수 밖에 없었다. '감정 맞추기'는 쉬운 게임이었거니 했는데 대체 표정이 화난 건지 슬픈 건지 등이 해하기 힘든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게임이 끝나 마무리인가 했는데 예상치 않게 성향과 역량에 대한 질의응답이 다시 나왔다. '면접 제출 완료'를 클릭하며 든 생각은 '이 게임들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연습 후 했더라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였다. 그래서 취준생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모의연습을 이용하나 보다.

하지만 회사 담당자에게 들은 설명은 예상과는 너무 달랐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응시자들이 면접을 다시 봤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기는 하지만 최종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세부역량 검사 점수는 조금 높아지거나 오히려 조금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는 취재자간 거라편한복장을 입었는데 결과가 나오는만큼 '정장을 갖춰 입을 걸' 하는 후회와 메이크업도 더 신경 써야 했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배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에 따라 폴 메이크업을 하고 면접에 임했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었던 반

면, 민낯으로 진행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복장이 AI 면접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면접이 녹화돼 인사담당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정장을 갖춰 입는 게 좋다고 회사 담당자는 추천했다.

드디어 며칠 뒤 받은 전체 평균 점수는 'B, 보통 중', 고성과 예측점수는 'B-, 보통 하'였다. 다른 응시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적어와 또박또박 읽기도 한다는 데, 단 한마디 답변도 준비 안 하고, 노트북 배터리가 떨어져 검사가 중단됐던 산만한 상황을 감안하면 좋은 결과라고 회사 측은 말했다. 긴장하지 않고 또박또박 답했던 게 주요 이유였던 것 같다.

담당자 면접 모니터링... 단정해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 '관건'

하지만 결과 설명에 '변화가 많고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면 허둥대기도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게임할 때 침착하게 규칙을 찾기도 뭐가 애초에 쫓기듯 급히 찍었던 기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또 '감정 맞추기'에서 도통 표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탓에 '주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편'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기자의 직무 때문인지 직군 적합도 분석에서는 영업·마케팅 직군에서는 80%의 적합도가 나온 반면, 엔지니어는 20%의 적합도가 나온 점도 눈에 띄었다./채윤정 기자

THINKWARE

아이나비

아이나비 CONNECTED

스마트폰으로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아이나비 QUANTUM 2
국내유일 전후방 QHD 커넥티드 블랙박스



아이나비 Connected

NB-IoT(협대역 사물 인터넷 기술) Connected 기술을 탑재하여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통신형 블랙박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차 충격 알림**
외부 충격 당시 촬영된 스틸 컷 전송
- 차량 위치 확인**
스마트폰 App으로 차량 위치 확인
- 원격 전원 제어**
스마트폰 App으로 블랙박스 전원 Off
- 차량 정보 표출**
배터리 잔량, 연비 등 차량 정보 확인

아이나비 CONNECTED

전·후방 320° QHD

F1.6 후방렌즈 | Vision BSD | Extreme ADAS | 울트라 나이트 비전 | 전방위 주차녹화 | 주차 저전력 강화 | Format Free 2.0 | Drive X

울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 올린다

3년간 매년 / 당 10원씩 ↑ 기초단체별 최대 14억 효과 주민 부담률 39% → 64%

울산지역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5년 만에 인상된다.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킨다는 취지지만, 각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중·남·동·북구와 울주군 등 모든 기초단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인상을 추진한다. 중·남·동·북구는 현재 / 당 50원(가정용 기준)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80원으로 올린다.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 당 10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가정용은 / 당 36원에서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66원으로 올린다.

각 지자체가 배출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은 현재 배출 수수료 주민 부담률이 39.4%(지난해 기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60.6%는 구·군 재정으로 부담한다.

즉 전체 배출 수수료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40% 미만이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지난해 중구 33억9000만원, 남구 48억6000만원, 동구 24억6000만원, 북구 33억5000만원, 울주군 36억1000만원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총 177억원 중 주민 부담률을 제외한 107억원을 기초단체가 부담한 셈이다.

울산시는 향후 3년간 인상 조치로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구는 8억6000만원, 남구 14억6000만원, 동구 5억6000만원, 북구 7억9000만원, 울주군 6억2000만원 정도 재정 지출을 각각 줄이게 된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입이 줄고, 복지 비용과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 매칭 비용 등이 늘어난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 인상을 통한 적자 감소는 말라붙은 지자체 재정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울산=최인탁 기자 remark@metroseoul.co.kr

휴게소 도로점용 허가 논란... 사고 위험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감속 구간 짧아 안전 위험 우려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진주사무소)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사천시 곤명면 국도2호선 도로에 접해있는 휴게소 신축현장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노선 곤명면 옛 다솔사역 앞에서 진주까지는 4차선으로 뚫려있어 운전자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하비난 원전교 주변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휴게소를 짓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자동차 출입로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경계지점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설치해 사용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9일 진주사무소에 따르면 사업주가 2017년 12월 19일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휴게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동차 출입로로 감속차선 55m, 가속주행



사천시 곤명면 국도2호선 도로에 접해있는 휴게소 신축현장

차로 길이 85m와 감속차선을 만들기 위해 도로변 임야 법면을 대상으로 신청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아직 준공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

문제는 휴게소 예정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감속하는 구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휴게소에서 나온 차량이 본선에 합류하기까지 가속구간도 너무 짧아, 향후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이 도로 편도 2차선에서 속도

가 빠른 차가 오른쪽 차선 진입 방향지시등 신호가 없을 경우 상당히 사고 위험이 따르게 된다.

더욱이 편도 2차선 감속차선 옆 법면 지역인 산지 경사가 안정성 없이 심하게 설계, 시공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토목 전문가는 "입구 감속차선과 가속 차선 구간이 짧게 설계됐다.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진주(경남)=이경화 기자 7470002@

담양군, 창업·주거 등 혁신거점공간 조성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54억 확보

담양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담양읍 담주리 일대 구도심지역에 '문화생태로 새로운 천년을 디자인하다'의 슬로건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구도심지역 14만4400㎡의 면적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창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할 사업은 노후주거지 집수리사업, 마을 공영주차장조성, 문

화예술 거점조성, 생태문화광장 조성, 어울림센터 조성, 해동문화예술촌과 연계한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군은 주민들과 각종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1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담양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전남)=김태수 기자

평택시, 건강한 수돗물 공급에 국비 75억원 확보

실시간 감시로 오염된 물 자동 배출 2020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

평택 시민들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시는 9일 수돗물 수질사고 예방과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75억원의 국비를 확보,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비 45억원을 확보해 총 65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도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수질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감시 ▲수질사고 시 오염물질 자동 배출 ▲유량 및 수압 감

시시스템 설치 등, 원수부터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건강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유량·수압·수질(탁도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 탁수 유입 등 수질 이상 시 경보 발령과 함께 오염된 물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누수와 같은 사고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홈페이지·수질 전광판·스마트폰 앱을 활용, 언제든 수질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

업'도 추진한다.

올해 130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25.7km를 교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9km를 교체할 계획으로, 2020년 교체사업비 230억원 중 국비 30억원을 포함 60억원을 확보했다.

미확보된 170억원은 국비 지원요청 등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 상수관에 대한 파손과 수질 안정성 우려를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5 해질 / 18:03

10월 10일 (목)
음력 : 9월 12일

수도권 날씨 **12~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 곡성군이 토란 명품화와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섰다.

/곡성군청

곡성토란 명품화·신규 수요 창출 나선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완료 전국 생산량 약 70% 차지

곡성토란이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토란 명품화와 신규 수요 시장 창출 행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곡성군에 따르면 관내 토란 재배 면적은 약 100ha로 우리나라 전체 재배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나 토양이 토란 재배에 적합해 면적 대비 생산량이 높아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곡성에서는 영양이 풍부한 토란을

생산하기 위해 논에서 윤작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토란을 재배하고 있어 국내 타 생산지와 구별된다. 여기에 섬진강과 보성강이 둘러싸고 있어 고온다습하고 일교차가 커 다른 지역에 비해 토란이 단단하고 고소하다.

군은 지역특산물인 토란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토란 절대 우위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토란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

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했다. 곡성군은 토란품질관리를 위해 곡성토란생산자 세미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역 토란 생산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군은 연평대에 맞는 다양한 식품군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담양(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금융] 2030 겨냥 온라인보험 '춘추전국' 핀테크사도 가세 05



Life

[인터뷰] '세종, 소용의남자' 최혜경 선아예술단 이사장 L2



을지로 세종대로 차선 줄고 인도 넓어진다...사대문 '도로 다이어트'

서울시 도로공간 재편 사업 세종대로 10~12차로→6~8차로 을지로 6차로→4차로로 축소 충무로·창경궁로 1개씩 줄여 속도 저감 유도, 보행자 편의 ↑

서울시가 을지로와 세종대로의 차도를 줄이는 등 사대문 내 도로 다이어트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9일 을지로,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도로공간 재편 사업은 도로의 수납폭을 줄여 생긴 공간에 보행안전시설과 편의시설, 녹색·공유교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을지로 시청삼거리~동대문역사문화거리에 이르는 2.5km 구간은 6차로를 4차로로 줄인다.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서울역 교차로 1.5km는 기존 10~12차로



에서 6~8차로로 바뀐다.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인 충무로(1km)와 창경궁로(0.9km)도 1개 차로를 축소한다. 차도가 사라진 공간에는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공유차량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을지로 서울광장 인근부터 DDP 주

변은 2차로가 줄어든다. 시는 보도를 확충하고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잇는다. 공유차량 주차 및 조업 주차 공간 90면을 배치해 보행자와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을지로 3~5가는 보행친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현재 양측 3개 차로가 조업주차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하도 진출입부 환기시설, 배전함, 불법적치물로 보행여건이 열악한 지역이지만 이번 공간 재편을 통해 걷기 좋은 곳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저저감을 위해 띠 녹지를 배치하고 보도 위 지장물을 없애 무장애 보행환경을 만든다.

세종대로는 차도가 30~40%가량 줄어든다. 보도가 확장되고 자전거 전용도로, 나눔카 주차장 등이 생긴다. 충무로와 창경궁로 내부 35개 지점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통행 속도 저감을 유도하고 보행자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문장교대식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대한문 앞 보도를 최소 5m 이상 넓히고 승례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횡단 보도를 새롭게 만든다"며 "광화문에서 승례문, 나아가 남산과 서울로7017까지 한번에 연결되는 관광 명소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로 재편 사업이 진행 중인 퇴

계로 2.6km 구간은 내년 5월 완공된다. 기존 1.2~3m 보행공간이 6m까지 넓어진다. 파퓰러 대여소 4곳이 설치되고 나눔카 대여지점 3곳과 조업주차 공간이 마련된다.

시는 2025년 녹색교통지역 내 21개 주요 도로에 대한 공간 재편이 마무리되면 보행 공간이 15만6810㎡(시청광장 12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내 최초로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지역의 녹색교통(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공간을 2배로 늘려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도로공간 재편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공간 재편 사업을 시 전역으로 늘려 시민들의 보행권을 혁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수원 연무 등 10곳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경기도 하반기 사업지 확정 광주 송정 등 총 950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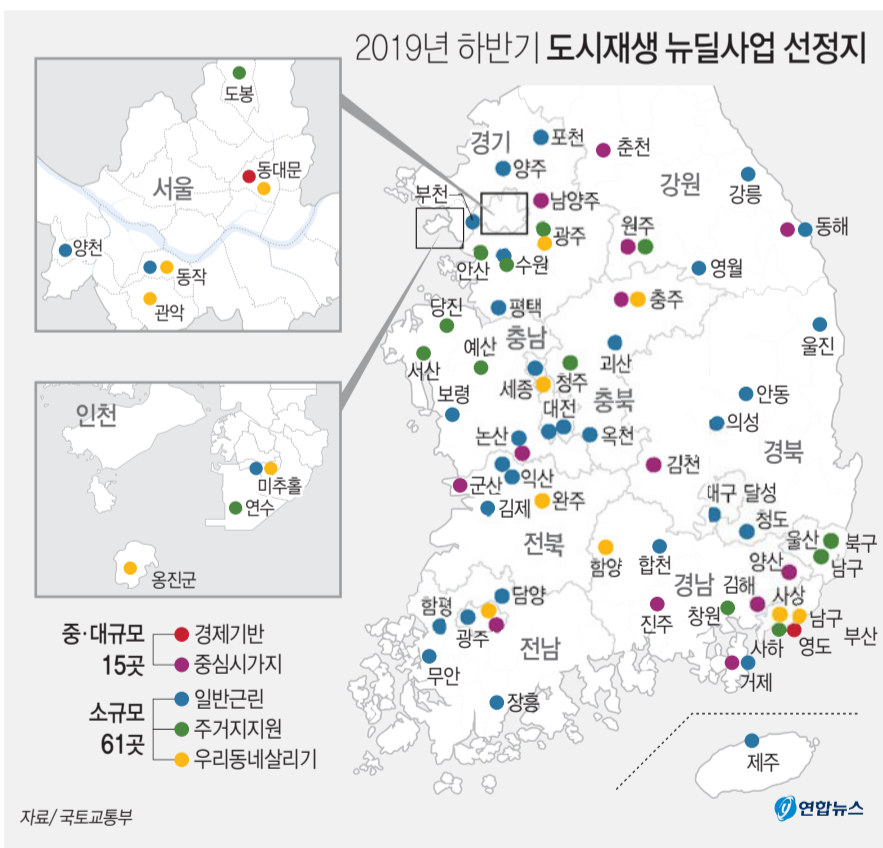
경기도는 수원시 연무동 등 도내 8개 시의 10개 지역이 정부의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도는 2017년 8개, 지난해 9개, 올해 상반기 4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올 하반기 선정된 10개 지역은 면적 5만㎡ 이하 '우리동네살리기' 1개(광주시 송정동), 5만~10만㎡ '주거지원형' 3개(수원시 연무동·안산시 본오2동·광주시 송정동), 10만~15만㎡ '일반근린형' 5개(수원시 세류2동·부천시 심곡본동·평택시 신장동·양주시 회천1동·포천시 신읍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9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광주시 송정동 지역은 생활복지구현을 위해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와 송정문화센터 조성 등이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수원시 연무동 지역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 어울림 터 및 세대통합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등을 담았다. 부천시 심곡본동 지역은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어울림 복합센터와 팔백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사업목표로 잡았다.

/수원(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신설·개선 등 손질

이용객 증가로 추가 설치 민원 ↑ 1~9호선 315개 쏘역사 실태조사

지하철 역사 주변 개발로 이용객이 늘어나 출입구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역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지하철 1~9호선 315개 역사를 전수 조사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은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지역별 특성과 출입구 설치의 불합리성, 향후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하철 역사 일대 재개발과 도시철도 광역화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해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개통된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의 경우 문정동 법조타운, 위례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수송인원이 늘어나 출입구 추가 설치 민원이 제기됐다.

5호선 우장산역처럼 출입구가 편중돼 있거나 3호선 학여울역과 같이 출입구가 1개로 부족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곳도 있었다.

출입구 추가 설치의 타당성 조사 이후 진행되지만 지하 굴착, 지장물 이설 등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 비해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현재 타당성 조사에 포함된 통행 시간 감소 편의 외에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하철 출입구 설치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패션위크', 14~19일 DDP서 열린다

서울시는 14~1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0 S/S(봄·여름)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이번 패션위크는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서울컬렉션' ▲신진 디자이너 작품

선보이는 '제너레이션 넥스트' ▲런던 패션위크와 함께하는 '해외교류 패션쇼' ▲패션 꿈나무들이 펼치는 '대학생 우수작품 패션쇼'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컬렉션에는 지준희, 장광호, 송지오 등 국내 우수 디자이너들의 패션

쇼를 33차례 만나볼 수 있다. DDP 앞길 2관이나 살림터 지하 3층에서 열린다.

K-패션의 저변을 넓혀나갈 신진 디자이너 패션쇼에는 문제이, 윤석운 등이 참여한다. 행사는 DDP 어울림광장 중앙에 설치된 GN관에서 진행된다.

이외에 포트폴리오 리뷰, 샘플마켓, 지속가능 패션 포럼, 멘토링 세미나 등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됐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배재학당에 전국체전 기념 표석 세워

'1회 전조선야구대회' 개최지

서울시는 전국체육대회의 효시가 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열렸던 옛 배재고보 운동장(현 배재학당역사박물관) 터에 기념 표석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선체육회는 친일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 대항하고 민족의 정신과 신체를 발달시키기 위해 1920년 7월 13일 창립됐다. 같은 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조선체육회

가 개최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는 전국체육대회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전 기념사업의 하나로 대한체육회, 배재학당역사박물관과 협의를 거쳐 가로 35cm, 세로 70cm, 폭 24cm 크기 역사문화유적 표석을 제작·설치했다.

역사문화유적 표석은 사라진 문화유산 터나 역사적 사건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표석에 담아 설치하는 제도다. 1985년부터 시작돼 현재 시 전역에 320개가 설치됐다. /김현정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혁신금융을 어시스트하다

꿈을 가진 벤처 창업가들이
혁신을 드리블하고 한계를 넘어서
성공이라는 골을 넣길 바라며

하나금융그룹은 혁신금융지원 사업으로
함께 꿈을 키우겠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혁신금융협의회

창업, 벤처기업의 혁신금융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출범

혁신금융 30조원 지원

2021년까지 기술금융 등 혁신금융 대상 30조 지원 예정

하나벤처스 설립

국내 최초 신기술 금융사 설립 및 1천억 펀드 조성